

사랑의열매

ISSUE **142**
2019 FEBRUARY

나눔으로 행복한 사람들의 이야기



나눔리더 된 뷰티 크리에이터 쌤
“운 좋아 받은 큰사랑
이제 나눌 차례”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한
한국필립모리스(주) 김병철 전무
“오랜 버킷 리스트,
드디어 실천하네요”

희망2019나눔캠페인
고마운 당신과
함께해서 참 좋았습니다

당신의 하루하루도 평안하길

서울 광화문광장 사랑의 온도탑에는 빨간 '희망나눔 우편함'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날마다 갖가지 사연이 도착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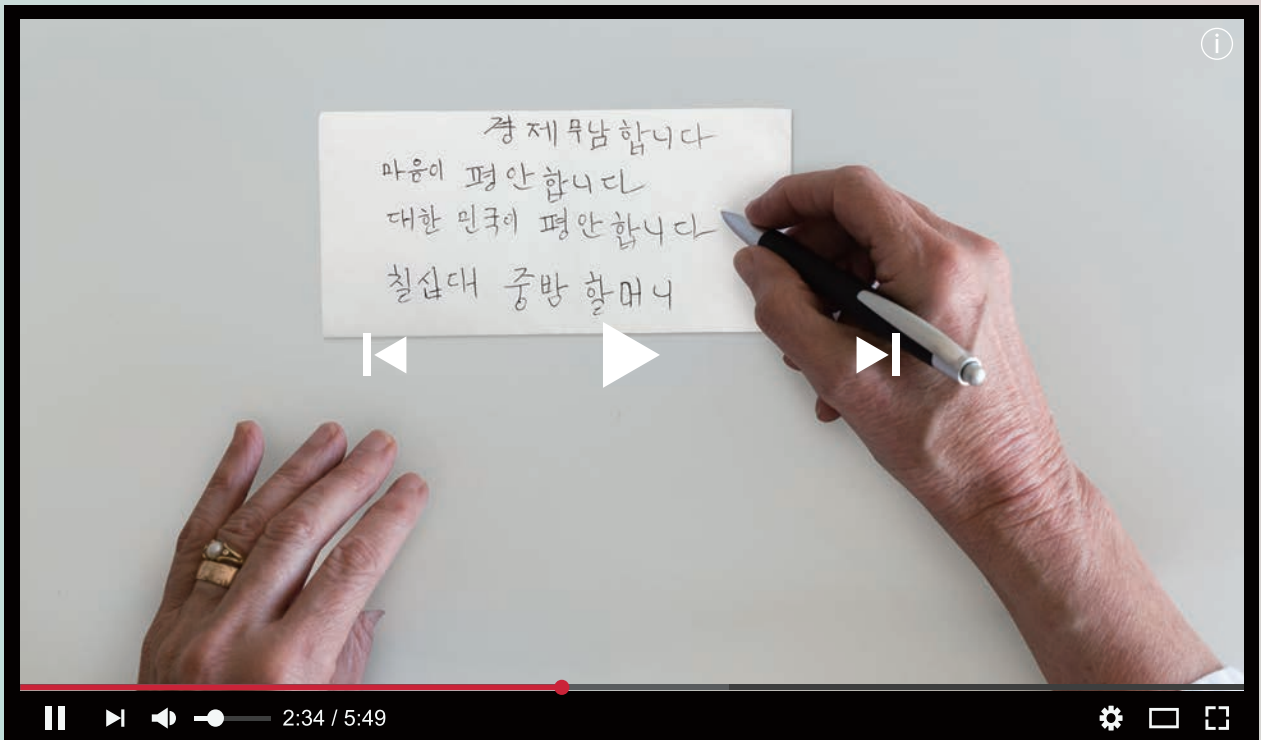
1월 7일에 도착한 엽서인데요, 이 편지의 주인공은 자신을 이름 대신 "칠십 대 중반 할머니"라고 밝혔습니다.

내용은 아주 짧아요. 하지만 한 줄 한 줄 꼭꼭 눌러 쓴 손 글씨에 모두에게 평안이 깃들길 바라는 마음까지 담겨 있어 마치

외할머니가 등을 토닥이며 건네는 말처럼 따스합니다. 설날에 세배를 하고 할머니께 덕담을 들은 기분이예요.

사전적 의미로 '무사히 잘 있음, 또는 걱정이나 탈이 없음을 뜻하는 평안. 이 글을 읽는 당신의 하루하루도 평안하길.

칠십 대 중반 할머니와 똑같은 마음으로 모두가 평안한 일상을 이루길 바라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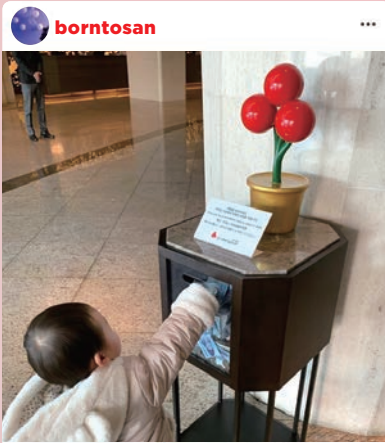


사랑의열매 공식 SNS

📷 인스타그램 @fruits_of_love 📘 페이스북 @chestkorea 🐦 트위터 @nanumin 📝 블로그 blog.naver.com/nanum_in
📺 유튜브 www.youtube.com/channel/UCJCLW5U-CQXMvLrXDoiaw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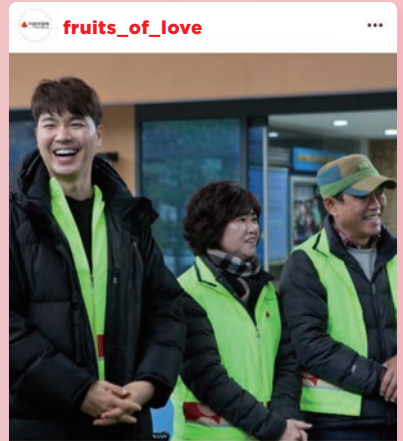


#사랑나눔저금통 #꼭꼭 채우기...
#유치원에 가지고 가서 #자랑한다며 열심히
모았다~^^
올인 #아프리카에 사는 #불쌍한 동생들에게
주겠다고... 티비에서 본 못 먹어서 얼굴은
뚫고, 마른 아기들 보며 매일 #눈물 #글썩글썩하는
#마음착한 #우리딸.. 그런데요 #저금통은~
#우리나라 #볼우이웃들부터 도와드리장~^^
#사랑의열매 #사랑의저금통
#볼우이웃돕기 #착한어린이
#7세 #사랑의열매저금통



사랑의열매를 알아보는 산이, 열매가 맛있어
보였나 한동안 놀러앉아 있었다는... 산이 침으로
모금에 동참했네.

#19개월아기 #599d #키즈카페가는길 #워커힐
#사랑의열매 #동참하는고사리순



다르지 않은 '우리'가 함께여서 더 행복한 시간!
진정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건 서로를 향한 관심과
소통 아닐까요?

사랑의열매 행복 주주인 기부자들과 임직원들,
그리고 사랑의열매 홍보대사 박수홍 씨가
강화도 우리마을을 방문해
'우리'를 알이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마을 이웃들과 함께하는 다르지 않은
'우리'의 따뜻한 동행,
사랑의열매가 발걸음을 맞춰 걸겠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우리마을
#강화도 #강화도우리마을 #우리마을 #박수홍
#우리 #봉사 #나눔 #관심 #급식 #재활훈련
#동행 #자원봉사 #기부자 #사랑의열매홍보대사
#이웃 #일상 #daily #스통 #팔로우 #follow #맞팔
#나눔스타그램



#나눔스타그램 캠페인

세상을 따뜻한 온기로
가득하게 만들어요!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모습, 일상의 따뜻한 사랑과
온정을 느낄 수 있는 모습을
담아주세요.

참여방법 일상의 따뜻한 모습,
나눔과 봉사의 현장, 또는 일상에서
만난 사랑의열매를 SNS에 올려주시고
해시태그를 달아주세요.

필수해시태그
#나눔스타그램 #사랑의열매
당첨자 선정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해시태그와 함께 사진을 올려주신
분 중 5명을 선정해 커피 기프트콘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에게는 개별
연락드립니다.



기간 놓친 기부
늦게나마 알아보러 가기 총총..
수익금이 이미 기부되어 있어서 다행이당
거울 짱 귀여움다.
나랑 같이 키스미 거울 사진 찍자. @_yeonhwi

#키스미 #사랑의열매 #올리브영 #북극곰살리기
#기부도있던데 #다음엔북극곰너다



연말에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자 #사랑의열매
에 소액 기부하는데요, 많은 이들이 좀 더 따뜻한
겨울이 되길 바랍니다.

CONTENTS



사랑의열매

vol. 142 2019 / 02

발행인 예종석

발행일 2019년 2월 / 통권 142호

발행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1길 39 사랑의열매회관 5층

만든이 사랑의열매 대외홍보본부

구독안내 전화 02-6262-3000

팩스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중, 라00605

기획, 편집디자인

한경매거진(주) 02-360-4856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
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집 희망찬 시작 2019

04 희망2019나눔캠페인의 행복한 순간

고마운 당신과 함께해서 참 좋았습니다
깊은 여운을 남긴 73일 나눔릴레이

10 따뜻한 세상을 꿈꾸며

한국필립모리스(주) 김병철 전무

14 이야기가 있는 현장

극장에서 만난 우리 동네 사랑 나누미들

18 커버스토리

나눔리더가 된 뷰티 크리에이터 쌤님

22 나누는 사람들

착한권리 도서부문 1호 이소노미야 구헤미 대표

아너 소사이어티 2,000호 회원
제너럴바이오(주)·지쿰(주) 서정훈 대표

가수 멜로망스 김민석





26 뽕큐 사랑의열매
주빌리은행

30 나의 '첫'사랑
농부 첫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배준식

32 착한기업
에듀일, 지역사회의 꿈에 든든한 날개를 달아주다

36 나눔 리포트
긍정 영향력을 발휘하는 착한 투자, SIB

38 장석주의 집밥 생각나는 날
어머니표 열갈이배추된장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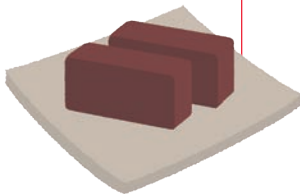
40 이달의 소식
나눔 공모전

42 화제
인천 쪽방촌 주민들 11년째 기부

43 전국뉴스
중앙회, 전국 17개 지역별소식

54 이달의 아너 소사이어티
참 좋은 당신이 있어서 세상이 1°C 따뜻해집니다

56 독자 페이지





'사랑의 온도 100도'

나눔으로
행복한
세상

사랑의열매
시민기금관리부서

2019년 2월 28일

희망2019나눔캠페인의 행복한 순간

고마운 당신과 함께해서 참 좋았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희망2019나눔캠페인’ 출범식과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이 열린 뒤 1월 31일까지 73일 동안 나눔 여정이 진행됐다. 고마운 사람들이 전해준 따뜻한 이야기를 지면에 담았다.

희망2019나눔캠페인 특별한 소식



시민과 소통하는 사랑의 온도탑 작년 이어 올해에도 사랑의 탑 전면에 LED화면이 배치됐다. 특히 올해에는 LED 화면이 한층 다양하게 활용되었다. 사랑의 온도를 알려주는 수은주 기능 외에 실시간 전국 기부소식과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등을 영상에 담았다. 또한 사랑의열매 20주년을 맞아 오랫동안 인연을 이어온 배우 채시라 씨와 방송인 현영 씨의 홍보대사 인터뷰가 상영되어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폐막식 행사 때에는 LED화면을 통해 대국민 감사영상을 상영하기도 했다. 캠페인은 끝났지만 일주일간 영상을 띄워 국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

희망2019나눔캠페인 피날레 지난 2월 1일 서울 광화문광장 사랑의 온도탑 앞에서 희망2019나눔캠페인 폐막식이 열렸다. 이날 예종석 회장, 김연순 사무총장, 기부자 대표(벨로망스 김민석, 울산 안재남,이영희 소방관 부부), 배분기관 대표(김영화 구로 화원종합사회복지관장), 사회자(KBS 최동석, 문소리 아나운서)가 참석한 가운데 73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다양한 사연이 가득, 사랑의 우체통 사랑의 온도탑 근처에는 희망나눔 우편함이 있었다. 올해도 이곳에 다양한 사연이 도착했다. 상당수는 어려운 이웃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다. “추운데 옷 따뜻하게 입고 밥도 꼭 챙겨 드셔야 해요”라는 다정한 당부 인사, “우리 모두 힘입니다. 당신은 위대하거든요”라는 자신감 팍팍 실어주는 멘트, “희망은 가장 최약의 순간에 그 진가를 발휘한다”는 가슴에 와닿는 명언까지 읽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기분이다. 그 외에도 전역을 기다리는 의경, 수능을 치른 고3, 좋아하는 친구에게 보내는 초등학교의 사연 등이 전해졌다.

희망나눔 우편함에 도착한 사랑의 편지



사랑을 전하는 다채로운 이야기

이웃을 위한 메시지부터 가족의 행복을 기원하는 메시지, 각종 안부 메시지까지... 내용은 제각각이지만 모두 누군가를 응원하거나 사랑을 전하는 따뜻한 마음을 담고 있다.





햇 땀보다 따뜻하고, 유자차보다 진한 진심

깊은 여운을 남긴 73일 나눔 릴레이

희망2019나눔캠페인을 진행하는
73일 동안 사랑의 온기가 이어졌다.
그중에서도 훈훈한 감동과 긴 여운을
남긴 특별한 이야기를 소개한다.

불의의 사고로 떠난 20대 청년을 기리는 익명의 주부

故 황승원 씨는 군 제대 후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2년 뒤 2013년 12월에 울산 사랑의열매에 자신을 황 씨의 군대 선임인 '송 경장'이라고 밝힌 20대 청년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99만 원을故 황승원의 이름으로 전달했던 일이 있었다. 이에 이어故 황승원 씨를 기리고 그의 군대 선임인 송 경장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매년 익명으로 99만 원을 성금하는 주부가 있다. 송 경장의 기부 기사를 접한 후부터 매년 연말이면 서울 사랑의열매를 방문해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다. 2018년 12월 21일 같은 방식으로 성금을 전달했으나, 언제나 그랬듯 익명을 요청했다. 다만 “故 황승원 학생과 같은 안타까운 희생이 없기를 바란다”는 말을 남기며 자리를 떠났다.



본인 연금을 기탁하고 홀연히 떠난 중천 스님

지난해 12월 7일 가야면 가야산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의 산내 암자인 용탑선원 주지인 중천 스님이 경남 합천군 가야면사무소를 방문해 200만 원 성금을 전달했다. 이 성금은 본인의 기초연금을 한 해 동안 모은 것으로,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2년 연속 같은 금액을 기부한 것이다. 중천 스님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나이 든 자신보다는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즐거운 학창 시절을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중하게 쓰면 좋겠다”는 짧은 말을 남겼다. 스님은 사진 촬영이나 언론 보도를 원치 않는다면 돈 봉투만 던져주고 서둘러 밖으로 나갔다는 후문이 전해진다.

우리동네 진정한 의인 홍천소방관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5시경 강원도 홍천군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홍천소방서 소방관들은 헬멧이 녹아내릴 정도로 위험천만한 불길을 뚫고 3세 어린이를 구조했다. 김인수 소방위, 최재만·박동천 소방장 그리고 김덕성·박종민·이동현 소방교의 몸을 던진 희생은 우리 사회에 뜨거운 감동을 주었다. 이에 LG복지재단으로부터 LG의인상과 상금 6,000만 원을 받았다. 홍천소방관들은 이 중 2,000만 원은 화재 가정의 아이에게 지원했고, 나머지 4,000만 원은 강원도소방본부와 강원 사랑의열매가 함께하는 119행복기금으로 기탁했다. 기탁한 성금은 후에 도내 화재 피해 주민들을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한다.



티끌 모아 태산을 실현한 오산시청, 울산 중구청 공직자

경기도 오산시 공무원노동조합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모은 봉급 끝잔과 이웃 돕기 성금 4,400만 원을 경기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오산시 공무원 중 희망자에 한해 매월 급여에서 1,000원 미만의 금액과 이웃 돕기 성금을 원천징수해 기부하는데, 직원들 사이에서 반응이 좋다. 울산 중구 공무원들 역시 1만 원 이하 끝잔을 모은 성금과 사랑의열매 성금을

모은 3,903만 7,340원을 울산 사랑의열매에 기부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중구청 전 직원인 643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월평균 300만 원 상당을 적립하는 등 티끌 모아 태산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다.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착한가게 동운택시

지난 1월 16일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동운택시가 사랑의열매 '착한가게' 캠페인에 함께했다. 착한가게에 가입한 동운택시는 평소에도 조수석에 부착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경찰청에서 제작한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영상물을 송출하고, 치매 노인이나 아동이 실종됐을 경우 택시에 전단지를 비치해 이들을 발견하는 데 기여하는 등 경찰의 보호 업무에 지속적 관심을 갖고 있던 곳이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이 범죄 피해자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랑의열매와 협업해 착한가게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 캠페인에 참여하면 매월 3만 원 이상 일정액을 기부하며, 이렇게 모은 기금은 범죄 피해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위한 긴급 생계비, 학자금, 의료비 등의 지원에 사용할 것이다.





관중의 사랑을 보답한 경남FC

지난 K리그 대상 시상식에서 경남 도민 프로 축구단인 경남FC(대표이사 조기호)가 '플러스스타디움상'을 수상했다. 이는 2018년 각 구단의 관중 유치 성과를 평가해 수여하는 상으로, 경남FC는 전 시즌 대비 평균 관중이 69% 증가해 K리그 구단 중 가장 높은 관중 증가율을 기록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도민과 팬들에게 받은 사랑을 되돌려준다는 의미에서 상금은 경남 사랑의열매를 통해 기부해 많은 이에게 박수를 받았다.



걸음마다 사랑 담백 BNK은행

BNK금융그룹(회장 김지완)은 건강한 기업 문화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BNK행복나눔사업'을 진행한다. 임직원인 한 걸음 걸을 때마다 1원씩 적립하는 '행복나눔 산행'과 참여 임직원이 납부한 출자금에 임직원이 내는 기부금만큼 기업도 후원금을 내는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진행한 '금연펀드'로 7,400만 원을 모았다. 이렇게 조성한 기금은 부산 사랑의열매를 통해 어려운 이웃의 건강검진과 의료비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1년간 받은 장애수당을 기부한 장수읍 할아버지

지난 1월 14일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행정복지센터에 70세 엄 모씨가 찾아왔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국가 지원을 받고 있지만, 1년간 받은 장애수당 48만 원을 이웃 돕기 성금으로 기탁했다. 할아버지는 지난해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을 통해 수세식 화장실과 난방 시설이 설치돼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벗어났다. 따뜻하고 편안한 겨울을 보내게 된 것에 감사하며 "내가 받은 도움을 조금이나마 되돌려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고 싶다"며 성금을 기탁했다.

가수 박기영 등과 함께하는 아프로존 신년음악회

즐기세포 피부 과학을 선도하는 기업 아프로존(대표 차상복)은 제5회 루베셀의 사랑나누기 신년 음악회 수익금 전액을 서울 사랑의열매에 기탁한다. 이 음악회는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새해 희망을 나눈다는 의미를 담아 2015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매년 음악회 수익금을 서울 사랑의열매에 기부하고 있다. 이번 음악회는 최정상급 민간 오케스트라로 평가받는 '코리아솔로이즈 오케스트라', 박인옥 지휘자, 가수 박기영과 테너 류정필이 함께한다. 연주곡, 가요, 유명 OST 등 다양한 곡으로 구성해 공연의 풍성함을 더했다. 수익금은 아동·청소년 지원 및 저소득층 결식아동 조식 지원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우리 주위 소외 여성에게 전해주세요' 성금기탁한

경남지방경찰청 여성대상범죄특별수사팀

지난 1월 23일 경남지방경찰청(청장 김창룡) 여성대상범죄특별수사팀이 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 수여한 '여성아동인권상' 포상금 전액을 사랑의열매에 기부했다. 여성대상범죄특별수사팀은 소외된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신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팀은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초 출범했다. 장애 여성·아동·친족 간 성폭력 사건뿐 아니라 주요 가정 폭력 사건도

담당한다. 미투 운동으로 불거진 미성년자 성폭행 가해자를 전국 최초로 구속했으며, 아동·장애인 및 친족 간 성폭력 사건 348건을 처리하는 등 눈부신 성과를 달성했다.

도시락에 고객과 함께 쌓은 사랑 전달한 GS25

GS리테일(대표 허연수)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지난해 12월 고객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고맙다는 말 아까지 마세요’를 콘셉트로 도시락 전 상품에 가족·경비원·환경미화원 등 평소 주위의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스티커를 부착했다. 도시락을 구매하는 고객이 ‘나만의 냉장고’ 앱을 통해 구매 1건당 1,000원 기부에 참여하면 그 금액만큼 GS리테일이 기부하는 방식이다. 입소문을 타 일주일 만에 목표 금액인 2,000만 원을 달성했을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 GS리테일은 기부금 2,000만 원을 사



랑의열매에 전달했다. 기부금은 서울시 환경미화원의 청소용품 등을 구매하는 데 쓸 예정이다.

22번 홈런 달성으로 청각장애인 음악교육을 지원한 kt지니뮤직



AI 음악 플랫폼 기업 kt지니뮤직은 경기 사랑의열매에 성금 1,100만 원을 전달했다. 이 성금은 2018년 시즌 동안 케이티위즈(kt wiz) 선수가 수원 케이티 위즈 파크 내의 야 좌측에 있는 지니뮤직 홈런존으로 홈런 1개를 칠 때마다 사회 공헌 기금 50만 원이 누적되는 ‘홈런존 프로젝트’를 통해 마련되었다. 총 9명의 선수가 지니 홈런존에서 22번의 홈런을 달성하며 총 1,100만 원 성금을 마련한 것이다. 이 성금은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에 전달했다. 청각장애인들이 다양한 신체적 활동과 다른 감각을 이용해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음악교육 지원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화끈한’ 나눔 협약식 맺은 족발야시장

전국 109개 가맹점을 보유한 족발 전문점 족발야시장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사랑의열매와 나눔 협약식을 체결했다. 나눔 협약식에서 1,000만 원을 기부했고, 앞으로 가맹점을 오픈할 때마다 10만 원의 기부금을 추가로 조성한다. 이렇게 모인 기부금은 서울 강북구 관내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 데 쓸 예정이다. 족발야시장 방경석 대표는 “전국 가맹점주분들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서 감회가 새롭다”며 “지역사회 어려운 분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싶다”고 나눔 실천 소감을 밝혔다. ♡



“오랜 버킷 리스트 중 하나, 드디어 실천하네요”

지난 1월 3일, 새해 첫 아니 소사이어티 2027호 회원이 탄생했다. 주인공은 한국필립모리스(주) 김병철 전무. 직장 생활 30년을 맞이해 아니 소사이어티에 가입한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의미 있는 새해를 맞이했다. 30년 전, 직장에 출근하는 그에게 어머니는 ‘남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하라고 당부하셨다. 그는 그 가르침을 평생 가슴에 담았다.

30년 차 직장인의 특별한 자축 선물

30년을 날수로 환산하면 1만 950일, 시간으로는 26만 2,800 시간이다. 강산이 세 번이나 바뀔 동안 김병철 전무는 열심히 일에 매진하며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 어느덧 직장 생활 30년을 맞았다면 스스로에게 비싼 선물을 해도 어느 누구도 비난하지 않을 터. 김 전무도 ‘큰 선물’을 해줬다. 자기 스스로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말이다.

“지난해 연말 직장 생활 30년을 맞이해 뜻깊은 일을 해야겠다 생각하던 중 아니 소사이어티 가입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제 오랜 버킷 리스트 중 하나였거든요. 큰돈을 내겠다고 했을 때 선뜻 동의해주고 적극적으로 지지해준 아내와 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기업 사회 공헌 임원 출신으로는 최초로 아니 소사이어티에 가입하며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가입식 소식과 인터뷰가 기사에 실리면서 주변 지인과 친구들에게 자연스럽게 알려졌다. 덕분에 2019년 새해를 연일 쏟아지는 칭찬과 격려에 정신 없이 보냈다고. 감사 인사를 너무 많이 받아 쑥스러운 마음 반, 앞으로 좋은 일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야겠다는 다짐 반이라며 뜨거웠던 주변 반응에 대한 답을 전했다.

“가입식 후 아내(정이영), 아들(김재우)과 함께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가입식에서 느

낀 감정과 생각을 공유하며 가슴 벅찬 하루를 함께했죠. 우리 가족에겐 행복한 하루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 같아요.”

가입식 후 아들은 “아버지를 더 존경하게 되었다”며 뜨거운 고백(?)을 했을 정도로 가족에겐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날만큼은 더 간절히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돌아가신 어머니였다.

항상 가슴에 품고 있는 어머니의 가르침

언제부터 나눔을 시작했느냐는 질문에 그는 망설임 없이 어머니 이야기를 꺼냈다.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직장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그때 어머니께서는 남을 더 많이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주변으로 눈을 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그동안 나름대로 꾸준히 나눔 활동을 해왔어요. 이번 아니 소사이어티에 가입한 제 모습을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서 보셨다면 기뻐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제대로 효도를 한 것 같아 뿌듯한 마음도 들었어요.”

김 전무의 아버지는 강원도 통천이 고향인 월남 피란민이다. 모두가 먹고살기 힘든 가난한 시대로 그의 가족 또한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는 8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지만, 교육열이 높은 아버지와 형제들 덕에 어려운 형편에도 대학까지 무사히

기업 사회 공헌 임원 출신으로 최초 가입

한국필립모리스(주) 김병철 전무



마칠 수 있었다. 헝기 왕성했을 때에는 자신의 사회적 위치는 오롯이 자기 능력 덕분에 올랐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일을 하면서 중앙아프리카, 남미 등 전 세계 어려운 나라를 많이 가봤어요. 그 나라에도 똑똑한 인재가 많아요. 그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건 노력하지 않았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국가와 사회가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에 지금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거죠.”

과거를 돌아해보면 학창 시절 장학금을 비롯해 주변 사람들의 조언 등이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되어주곤 했다. 도움을 준 이들에게 보답하는 게 맞지만, 보답을 확산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선택하며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아너 소사이터티 가입 역시 직장 생활 30년을 맞아 자신이 지금 위치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와준 사회에 보내는 큰 보답인 셈이다.

뼈뼉뼈뼉 손 편지에 담긴 진심

“2년간 본사에서 사회 공헌 책임자로 일하면서 정부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많이 봐왔어요. 정부 예산에는 한계가 있으니 지원이 꼭 필요한 곳인데도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죠. 기업이 해야 할 일이 많음을 느꼈어요. 한편으론 이 분야를 공부해 사회 공헌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는 목표가 생기는 계기가 되었죠.”

김 전무는 자신이 세운 목표대로 2010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도 적극 진행하고 있다. 그가 몸담고 있는 한국필립모리스(주)에서는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진행 중이다.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후원, 담배 경작 농민 건강검진 사업, 장학금 기탁 등 지역사회와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 그중



에서도 냉동탑차 기증은 가장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회 공헌 활동이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기부받은 식품을 소외된 이웃들에게 나누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하는데, 식품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운반하기 위해선 냉동탑차가 필요하다. 이에 한국필립모리스(주)에서는 1999년부터 전국 주요 도시 사회복지시설에 먹거리 나누기 냉동탑차를 기증하고 있다.

“기억에 남는 순간이 정말 많아요. 직업훈련을 통해 일자리를 구한 발달장애인들이 저한테 편지를 보낸 적이 있어요. 뼈뼉뼈뼉한 손 글씨로 ‘엄마 아빠한테 용돈을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적었더라고요. 짧은 문장이지만 자신들이 느낀 기쁨과 행복이 저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나눔으로 모두가 행복한 그날을 위해

그렇다고 김병철 전무가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만 한 것은 아니다. 발달장애인 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동네 사회복지관에서 도시락 배달 봉사를 하는 등 개인적으로도 나눔 활

동에 각별한 애정을 쏟고 있다. 당장 그가 해야 할 일만 한다고 해도 시간이 부족할 터. 그럼에도 개인 시간까지 쪼개며 나눔을 실천하는 이유는 뭘까 궁금해졌다.

“예전에 외국에서 운전하던 중 타이어가 펑크 난 적이 있었어요. 난감해하던 그때, 낯선 외국인 운전자가 자기 차에 있던 예비용 타이어로 교체해줬어요. 고마운 마음에 사례라도 하고 싶다고 했더니 금전적 보답은 거절하겠다고, 나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나에 대한 최고의 보답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바라는 것도 이와 같아요. 많은 사람이 단 30분이라도 기부 활동에 참여하며 나눔 문화의 저변이 확대되길 바라는 거죠.”

기부는 그 사람의 경제력 수준이 아니라,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소수가 고액을 기부하는 게 좋은 사회가 아니다. 탐사 보도 언론 후원, 재능 기부, 자원봉사 등 관심사에 따라 자신의 행복을 찾으며 남을 돕는 사람이 많은 사회가 그가 원하는 모습이다.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한 후 주변 지인들이 금전적으로 기부하고 싶는데 방법을 모르겠다며 물어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찾으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럴 때 저는 사랑의열매에 기부하라고 해요. 가까이에서 지켜본 결과 기부금을 허투루 쓰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배분하며, 조직원도 열심히 하는 곳임을 아니까요.”

김 전무는 2010년부터 사랑의열매에서 예산심의와 대외홍보 분야 자문위원을 맡고 있어 한 해 동안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가 사랑의열매를 믿고 신뢰해도 된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이유다. 자문위원을 맡은 지 벌써 10년이 되었지만, 사랑의열매를 향한 애정은 변함없다는 게 그의 전언이다.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까지 한 올해, 김 전무의 왼쪽 가슴에 자리 잡은 빨간 열매가 그 어느 때보다 다르

게 느껴질 터.

“작년과 무개가 확실히 달라요. 열매가 주는 의미와 그에 따른 책임감을 더 많이 느껴요. 솔직히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은 저를 위해서 한 일인데, 주변에서 대단한 일 했다며 칭찬도 많이 하고, 인터뷰 요청도 들어오니 여전히 쑥스럽네요. 다만 제 소식을 듣고 주변 사람들이 기부를 화제로 삼으며 자연스럽게 관심을 유도할 수도 있으니 그 또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남북 교류가 활성화될 경우 북한 주민을 위한 나눔 활동을 하고 싶다는 개인 목표를 밝혔다. 아버지 고향인 강원도 통천 땅을 밟으며 나눔을 전파하는 그날을 기다리는 중이다.

많은 이가 김병철 전무의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을 주목하는 것은 단순히 고액을 기부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 안에는 과거 자신이 받은 지원에 감사하는 마음과 어려움에 처한 이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도움을 받은 누군가가 또 다른 사람을 도우며 나눔이 사회 곳곳으로 널리 전파되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으리라. 선한 영향력을 널리 퍼뜨리는 그의 과감한 나눔 행보에 많은 이가 박수를 보내는 이유가 아닐까. 🍎

“
**개인이든 기업이든
 일회성 기부보다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



좌측부터 사랑의열매 이재학 대외홍보본부장, 김병철 전무 가족, 김연순 사무총장, 김효진 모금사업본부장



롯데시네마와 함께한 기부자 초청 행사

극장에서 만난 우리 동네 사랑나눔미들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뒤에서 묵묵히 지원하는 기부자와 자원봉사자들을 롯데시네마 예비뉴엘(명동)에서 만났다. 스포트라이트를 고사하며 우리 사회 어두운 곳을 밝히는 그들을 만나 행복한 나눔 이야기를 들어왔다.

기부자 초청 행사

〈그대 이름은 장미〉 영화 관람 현장 스케치

지난 1월 17일 저녁 7시, 영화 상영을 기다리는 기부자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만발했다. 영화 외에도 의미 있는 이벤트로
가득해 주는 기쁨과 받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었다.

사랑을 더하고 마음을 나누다

이번 행사는 롯데시네마에서 영화 상영을 기부하면서 이루어졌다. 사랑의열매는 이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기부자와 자원봉사자를 공개 초청했다. 행사장에는 10대 청소년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기부자들이 함께했다. 이번 행사를 기부자 140여 명이 문화 행사로 기획한 것은 이들이 사랑의열매 근간이 되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기부자에게 주는 기쁨을 넘어 받는 즐거움도 느끼게 하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

기부자 손재우 씨는 “저는 아주 작은 것을 주었고 주는 기쁨만으로도 충분했는데, 오늘 뭔가 더 크게 돌려받는 기분이 든다”는 소감을 밝혔다.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 단장들과 함께 왔다는 나눔봉사단 강남구단장 박태순 씨는 “봉사 10년 만에 이런 행사는 처음”이라며 “봉사하는 사람들끼리 다 같이 영화를 보니 참 좋다”라고 말했다. 영화 상영 전에는 희망나눔 우편함에 엽서쓰기와 기부자 설문 조사도 진행

했는데 이를 통해 나눔에 대한 생각과 사랑의열매에게 바라는 것 등을 알 수 있었다. 〈그대 이름은 장미〉라는 영화 제목과 같은 비누 장미를 선물하는 소소한 이벤트도 진행되었다. 행사에 참여한 김원영 씨는 “지인을 따라왔는데, 즐겁고 재미있다는 인상을 받아서 다음에는 연탄 봉사도 따라가볼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기부자들이 모이는 행사는 단순한 보답 이벤트를 넘어 이처럼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한다.

기부는 쉬운 것이 아니지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다. 과거에는 돈과 물질적인 것만 기부라고 생각해 보여주기식 일회성 기부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부 플랫폼이 다양해져 시민이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를 실천할 수 있다. 읽었던 책을 어린이 단체에 제공하거나, 자신의 재능으로 무언가를 돕는 일도 기부다. 제품을 하나 사면 하나가 기증되는 사례들도 있다. 이처럼 생활과 밀접한 기부가 활성화돼야 건강한 기부 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

“봉사에는 신기한 매력이 있어요. 하나를 반으로 나누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게 보통의 셈법인데, 봉사는 나눌수록 붙어오는 느낌이에요.” 자원봉사자 남상진 씨의 말이다.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 역시 끊임없는 나눔이 행복의 원천이라고 입을 모은다. “뿌듯함과 벅찬 감동을 이자로 받는 것”이라고 말하는 기부자도 있었다.

나눔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다. 그 사랑이 열매를 맺을 때 이웃과 내가 행복해진다. 이것은 사랑의열매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1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기부자와 봉사자들 2 설문 조사에 응하는 참가자들
3 희망나눔 우편함 답례로 비누 장미를 받은 참가자가 환하게 웃고 있다.



기부자 자원봉사자 TALK



“사랑의열매와 함께 성장하는 것 같아요”

엄마와 함께 영화를 보러 왔는데 무척 인상적이었어요. 눈물이 날 정도로 꼭 빠져서 봤어요. 평소 사랑의열매 나눔교육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나들이까지 해서 너무 좋아요. 사랑의열매가 우리도 키워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쌍둥이 자매 최서연·최서진(13, 서울시강동구)



“기부 문화가 일상에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기부를 하며 자라서인지 성인이 되어서도 기부와 봉사를 당연시 했어요. 어릴 때부터 용돈의 일부라도 기부하고 이웃을 위한 뿌듯함을 느껴보는 일이 중요한 것 같아요. 기부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익힌다면 좋은 교육이 되지 않을까요? -이원영(23, 경기도 안양시), 김성은(24, 경기도 안산시)



“봉사는 남이 아닌 나를 위한 것이에요”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 강남구단장으로 활동하며 10년째 노인복지 봉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봉사는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일더군요. 누군가를 도우면서 더 많은 즐거움을 느끼고 에너지를 받았거든요. 젊어지는 비결을 묻는다면 봉사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박태순(72, 서울시 강남구)



“아들과 함께하는 봉사는 남다른 의미로 다가오죠”

부모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돕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랑의열매에 10년째 기부를 하고 있는데, 아들(11세 손지현 군)이 크면서 연탄 봉사를 시작했죠. 작년에 처음 나갔는데 아들과 함께하니 감회가 남다르더군요. “뿌듯했다”는 아들의 소감을 들으니 그야말로 감동 백배! 살아 있는 교육이 거기 있더군요. -손재우(45, 경기도 군포시)



“젊은 층을 위한 인터넷 홍보 많아지길”

평소에 기부에 관심이 있어서 여러 사이트를 돌아본 뒤에 기부할 단체로 사랑의열매를 정했어요. 미디어에서 많이 접해서 익숙하고 친근한 느낌이 들더군요.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다양한 사업과 소식이 더 많이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젊은 세대는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접하기 때문이죠. 훈훈한 소식으로 업데이트되는 사랑의열매는 누구라도 좋아할 게 분명합니다. -이건우(25, 서울시 종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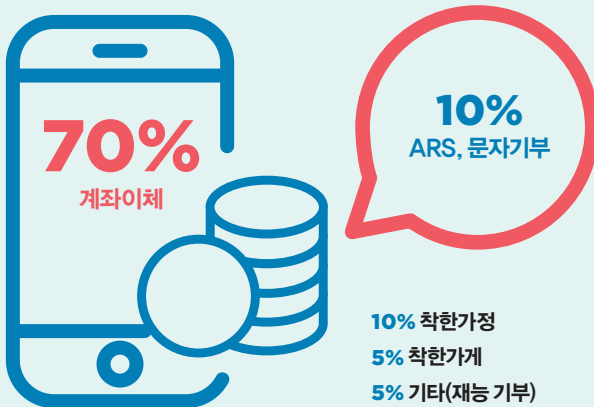
“연탄 봉사는 연탄 무게만큼의 희열을 줍니다”

연탄 봉사를 한 지 2년째입니다. 인천 도원동에서 봉사를 시작했는데, 힘들다는 생각보다 쌓이는 연탄 무게만큼 뿌듯함이 몰려오는 경험을 했어요. 즐거운 분위기에 추위도 느껴지지 않았고, 마음속에 군불을 지핀 듯 따뜻한 선물을 받은 기분이었죠. 심리적 월동 준비가 필요하다면 연탄 봉사를 강추합니다. -정보석(23, 서울시 동대문구)

기부자·자원봉사자에게 물었습니다 나에게 사랑의열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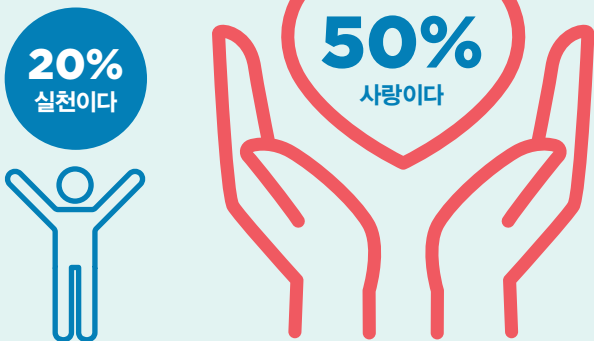
‘사랑의열매와 롯데시네마가 함께하는 기부자 초청 행사’
현장에서는 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가 이루어졌다.
설문은 140여 명의 참가자 중 50명이 참여했으며,
이를 통해 사랑의열매 기부자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알아볼 수 있었다. (연령 10~70대/ 남녀 비율 3:7)

Q2 사랑의열매 기부 방식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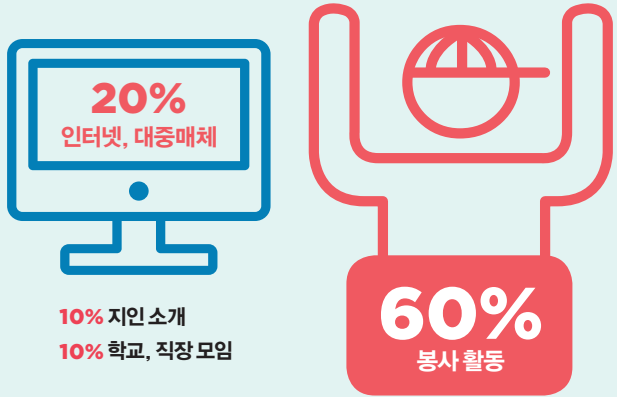
Q4 나에게 사랑의열매는 OO이다.

10% 일상이다 **10%** 기타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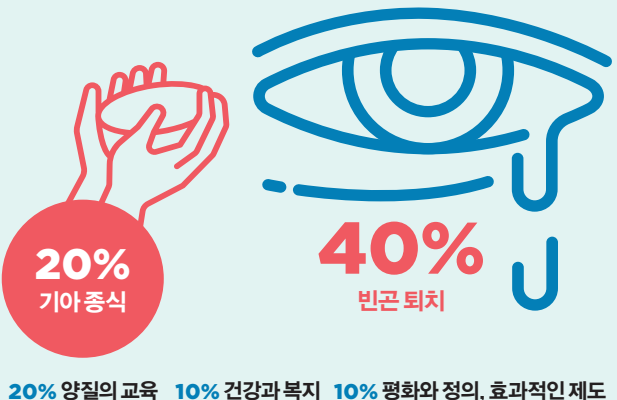


• 주관식 답변임에도 절반의 응답자가 '사랑'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실천과 일상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기타 의견으로는 '늘 챙겨주고 싶은 동생이다', '모금의 표본이다', '긍정의 아이콘이다'라는 답변이 있었다.

Q1 사랑의열매와 처음 인연을 맺은 동기는?



Q3 사랑의열매가 우선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사회 이슈는?



• 다섯 가지 사회 이슈 외에 기타 답변으로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기후변화 대응, 성 평등도 꼽혀 눈길을 끌었다.

Q5 기부자와 자원봉사자의 한마디

“기부자가 모일 수 있는 봉사나 행사를 많이 주최해주세요.” - 전정윤 (31, 여)
봉사 활동 10년 만에 문화 행사 참여가 처음이라 설레고 신난다는 참가자도 있었다. 이들은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선한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바람도 담았다.

“투명한 재정 관리가 첫째입니다.” - 최순재(64, 여)
최순재 님 외에도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재정의 투명성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기부자의 알 권리가 강화될 때 기부 문화가 확대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잘하고 계시지만, 깊이 있는 대상자 발굴에 좀 더 힘써주세요.” - 남임현(68, 여)
기부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지원하는 것이 사랑의열매의 첫째 소임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그만큼 대상자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나눔리더가 된 뷰티 크리에이터 씬님

“운 좋아 받은 큰 사랑, 이젠 나눔 차례”

뷰티 크리에이터 씬님이 지난해 12월 말 사랑의열매 ‘나눔리더’에 가입했다. “제 할머니 같은 어르신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화려한 메이크업에 가려져 있던 소탈한 그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션님이 손바닥만 한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주체할 수 없는 듯 무한한 끼를 발산해낸다. 국내 1세대 유튜버 씬님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161만명. 지금까지 올린 동영상의 수가 540개 넘고 누적 조회 수는 3억 7,000에 달한다. 뷰티 크리에이터로 불리는 그는 그야말로 천의 얼굴이다. 메이크업 하나로 시크한 남자가 됐다가 러블리한 소녀가 되기도 한다. 콘텐츠 주제는 더욱 광범위하다. 구독자 전체의 10%를 차지하는 외국인을 위해 영어로만 대화하거나, 최신 유행 드라마를 패러디하기도 한다.

물론 그가 작은 화면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이나 팬미팅도 자주 한다. 최근에는 JTBC 예능 프로그램 <랜선 라이프>에 출연해 좀 더 널리 얼굴을 알렸다. 꾸밈없이 솔직하고 거침없이 당당한 그에게 열광하는 젊은 층이 늘고 있다. 인기가 높아질수록 그의 메이크업 스타일뿐 아니라 언행까지 주목하는 사람도 많아진 게 사실이다.

션님은 지난해 11월 사랑의열매가 개최한 ‘토닥 토닥 토크 콘서트’에 재능 기부 형식으로 참여해 2030 세대를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사랑의열매와 맺은 인연은 계속 이어져 한 달 뒤인 12월 씬님은 1,100만 원을 기부하고 ‘나눔리더’로 가입

했다. 유튜브 영상 속 과격하고 쾌활한 씬님만 보아온 이들에게는 그의 나눔리더 가입 소식이 다소 의아하게 들릴지 모른다. 씬님은 이렇게 말한다. “우연한 기회로 운이 좋아 성공했고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다. 이제는 그 사랑을 돌려줄 때가 온 것뿐이다.” 나눔에 대한 생각을 전하는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차분했다.

지난 연말 ‘토닥토닥 토크 콘서트’ 강연 후 나눔 리더에도 가입했다. 나눔을 결심한 계기는?

저는 시대를 잘 타고났다고 생각해요. 운이 좋았죠. 유튜브를 시작한 후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을 혼자 누리기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받은 사랑을 돌려줄 수 있는 방식의 하나로 지난해 초부터 기부를 하고 있어요. 저랑 자주 소통하는 친구들이 10대에서 20대 초반이거든요. 그 친구들이 저를 보고 기부에 대한 생



“기부라는 게 꼭 돈을 많이 번 뒤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만 있다면 작은 정성으로도 나눔에 동참할 수 있으니까요.”

좌측부터 하상욱 시인, 씬님, 이연복·박수홍 홍보대사

“ 올해 목표가 ‘초심으로 돌아가자’예요. 유튜브를 즐겨 보는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건 보다 단순하고 일상적인 콘텐츠거든요. 순수하고 꾸미지 않은.”

각을 달리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기부라는 게 꼭 돈을 많이 번 뒤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만 있다면 작은 정성으로도 나눔에 동참할 수 있으니까요.

기부금을 어디에 썼으면 하나?

어릴 때 할머니와 가깝게 지내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함께 쌓은 좋은 추억도 많고요. 지금은 할머니가 요양 시설에 계시고 저도 나이가 들면서 노인복지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저희 할머니를 비롯해 어려운 환경에서 외롭게 지내시는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요. 꿈이 있는데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에게도 전달된다면 좋겠고요. 한부모 가정이나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자신의 환경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일도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 분야에 쓰이길 원해요.

기부는 물론 언행 하나하나 화제가 될 정도다. 이른바 말하는 인플루언서(influencer: 영향력 있는 개인)로 사는 게 힘들진 않나?

힘든 점도 물론 있죠. 예를 들면 5년 정도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 ‘이젠 또 어떤 걸 만들어야 하나’ 고민이 깊어요. 예전에는 영상을 찍을 때 별로

부담이 없었거든요.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보면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까지 들기 시작했어요. 말도 막 던졌는데 이제 그러지도 못하겠고요. 그래도 제 영상의 구독자와 정보를 공유하고, 정서적으로 공감하면서 힘을 얻어요. 웃을 일 없이 팍팍한 세상이잖아요. 누군가에게 재미를 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 뿌듯한 일이지요.

그래서인지 새로운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진다. 올해는 어떤 콘텐츠를 볼 수 있나?

신선한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노력은 늘 하고 있는데요. 어느덧 제가 콘텐츠 퀄리티에 집착하고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B급, C급이라도 즐겁고 편안하게 만들었는데 점점 더 잘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영화나 CF 감독이라도 된 것처럼 심혈을 기울여요. 그러니 게시물 수가 줄어들 수밖에요. 유튜브 특유의 감성을 잃어버린 것도 안타깝고요. 그래서 올해 목표가 ‘초심으로 돌아가자’예요. 유튜브를 즐겨 보는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건 보다 단순하고 일상적인 콘텐츠거든요. 순수하고 꾸미지 않은. 부담을 줄이고 더 쉽게 제작해서 많은 콘텐츠를 생산해내려고 해요.

즐거 보는 채널이 궁금하다. 아이디어 영감은 주로 어디서 얻는지?

다양한 분야의 해외 유튜브 영상을 매일 10개 이상은 봐요. 특히 코미디 채널, 그중에서도 라이언 히가(Ryan Higa), 라이자 코시(Liza Koshy)의 채널을 좋아해요. 말을 전부 알아듣진 못해도 몸짓이나 뉘앙스 등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들의 표현 방식에 중점을 두며 보고 있어요. 미국에서 활동하는 다른 스타 유튜버들도 눈여겨봐요. 미국에 유튜버가 등장한 게 10여 년 전이니까 우리나라보다 두 배 정도 빠르거든요.



그들의 트렌드가 확산되어 흘러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메이크업은 해외 채널을 참고하기가 힘든 편이에요. 트렌드는 물론 우리나라에서 선호하는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국내 셀러브리티, 아이돌, 인스타그램 사진을 수없이 찾아보죠. 요즘 누가 인기 있는지, 사람들이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그런 느낌을 낼 수 있는지 연구해요.

한 회사의 대표이기도 하다. 사업가로서 살아보니 어떤지?

제작년과 작년에 스스로 몸을 혹사시킬 정도로 일을 많이 했어요. 사실 제가 비즈니스에는 큰 관심이 없거든요. 영상을 찍고 제작하는 걸 좋아하지 그걸로 사업해서 큰돈 벌고 그런 데에는 재능이 없더라고요. 작년에야 비로소 그걸 깨닫은 거죠. 하하. 스트레스받으면서 일하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내 마음에 더 집중하고 싶어졌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사업가로 일하면서 콘텐츠에 더 집중하게 된 거죠.

블로거로 시작해 이름을 알렸고 독보적 크리에이터가 됐다. 5년 후 꿈꾸는 모습은?

글쎄요, 처음에는 원대한 꿈을 꿧어요.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을 키우고... 근데 지금은 가늘고 길게 가고 싶어요. 예순 살까지 취미로 유튜브하면서 살면 안 될까요? 하하. 어쨌든 저는 영상 제작에 가장 관심이 많고 그 분야에서 일할 때가 가장 즐겁더라고요. 카메라 앞에 서는 것도 가끔은 스스로 통제가 안 될 만큼 재밌기도 하지만, 그걸 혼자 편집할 때 희열을 느껴요. ‘여기서 이렇게 편집하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도 즐거운 거죠. 한번



빠지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24시간 내내 집중할 때도 있어요. ‘역시 난 제작자야’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5년쯤 후에도 전 계속 영상을 만들고 있을 거 같아요. 꼭 제가 출연하지 않더라도 요리를 하든 슬라임을 만지든 할 수 있는 채널은 많으니까요. 그땐 좀 더 제대로 된 제작자가 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마치 광고 촬영처럼 상기된 말투로) 아직 썬님 채널을 모르신다면 유튜브에 썬님을 검색해보세요. 메이크업에 대한 재미난 정보가 가득합니다! 하하. ❀

착한권리 도서부문 1호 이소노미아 구헤미 대표

천재들의 지혜를 읽고 기부도 하는 착한 책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책 속에 길이 있다고 말한다. 도서출판 이소노미아 구헤미 대표는 책을 통해 나눔의 길을 선도하고 있다. 책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그들의 착한 기부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이소노미아를 달리게 하는 5%의 힘

착한권리 도서부문 1호 출판사가 탄생했다. 모든 사람이 지배받거나 지배하지 않고 평등하다는 뜻의 고대 그리스어에서 이름을 따온 이소노미아가 바로 그 주인공. 그 후 인문 시리즈 ‘인류 천재들의 지혜 시리즈’로 발간되는 책의 정가 중 5%를 기부하는 협약을 사랑의열매와 맺었고, 2018년 9월 4일에 가입식을 했다. “저희가 먼저 착한권리로 기부하고 싶다는 사랑의열매 측에 연락을 드렸어요. 저희 출판사에서 코디정이라는 이름으로 편집장을 맡고 있는 정우성 변리사님이





좋은 책, 재밌는 책, 많이 읽히는 책

인문 고전으로 기부 협약을 맺은 이유는 뭘까? 구혜미 대표의 고전 인문을 향한 애정도 있었지만, 지혜의 보고인 책을 통한 기부는 더욱 특별하다고 생각했다. 책을 읽은 독자는 삶의 지혜를 얻음과 동시에 타인의 삶에 도움이 되는 기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더 많은 독자가 찾는 책을 만들고 싶었다.

“인문 고전을 출판하고 싶었는데 1인 출판사에서 고전이 나온다는 건 굉장히 무모한 일이거든요. 대형 출판사처럼 가격을 낮출 수가 없기에 가격 경쟁력에서 떨어지기 때문이죠. 우리는 퀄리티 높은 좋은 책을 만들어서 불리한 점을 극복하고자 했어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스무 번이 넘는 편집을 하고 단어는 요즘 사용하는 대중어로 번역했다. 책의 얼굴인 제목도 치열하게 고민했다. <도덕 형이상학의 기초>는 선한 의지가 핵심이기에 제목을 <굿 월>로 바꾸었고, 2019년 1월에 선보인 세 번째 책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는 <타인의 행복>이라는 이소노미아만의 제목으로 선보였다.

“칸트의 <도덕 형이상학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책을 내면 아무도 안 읽을 게 확실했어요.(웃음) 그래서 저희만의 책 제목을 만드는 데 고민했지요. 밀의 <공리주의>도 같은 상황이었죠. 독자들이 제목을 보고 지레 멀리하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인류 천재들의 지혜 시리즈’를 기획했고 지금까지 출간된 책 표지에는 착한 권리로 기부된다는 뜻으로 사랑의열매 로고가 찍혀 있다.

생각보다 쉬운 현재진행형 권리 기부

구 대표는 착한권리 기부 전 나눔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고 한다. 마음 한구석엔 나눔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불편함이 있었고, 기부를 하면 나와 내 자식에게 복이 돌아오지 않을까 기원하는 마음이 공존했다.

“착한권리를 진행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죠. 일단은 기부금을 얼마나 내야 할지 고민하지 않아서 좋았어요. 책이 팔리는 만큼 기부하기 때문에 마음 부담도 적었고요. 덕분에 더 이상 나눔을 어렵지 않게 느끼는 좋은 계기가 되었어요.”

그녀는 착한권리를 모르거나 모든 권리를 다 기부해야 한다고 오해하는 단체나 회사가 있음을 알고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권리 기부는 좀 더 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의 조금 앞선 시작을 보고 많은 사업체에서 나눔에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인류 천재들의 지혜 시리즈’로 맺은 착한권리 기부 협약은 시리즈가 끝나지 계속된다. 이소노미아의 기부는 화려하진 않지만 흐르는 물과 닮았다. 착한권리 기부의 물꼬를 터주고 흘러 흘러 언젠간 큰 물줄기가 되어 강이 되고 바다가 되리라. 그들의 나눔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하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흐르는 물은 멈추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

사랑의열매 상표권을 10여 년 전부터 말아서 해왔기 때문에 착한권리에 대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구혜미 대표는 사랑의열매와 협약을 맺은 후 좀 더 많은 독자에게 알리고 싶었다. 하여 2018년 8월, 텀블벅에서 버지니아 울프의 <WHY>와 칸트의 <굿 월> 펀딩을 진행했다. 작품을 선정하는 데 3년의 논의가 있었고, 편집에만 2년이 걸린 책이다. 준비한 시간이 길었던 만큼 책에 담긴 정성이 독자에게도 전해져서인지 반응은 뜨거웠고, 펀딩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 두 권의 책은 펀딩의 성공에 힘입어 시중 서점에서 더 많은 독자와 만나고 있다. 이소노미아의 선한 의지에 공감하고 동참해준 독자들 덕분이다. 하지만 독자들의 뜨거운 반응과는 달리 출판계에 있는 지인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좋은 일을 하는구나”라고 운을 떼면서도 그다음 말은 “왜 이런 기부를 해? 사업적으로 이득도 없고 출판과 어떤 관련도 없잖아”라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구 대표의 생각은 달랐다. 출판사와 자신에게 많은 이익을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

“착한권리 기부 방식은 내가 잘돼야 기부도 잘된다는 의미예요. 그동안 일을 잘했는지, 열심히 했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채찍질하게 되어 출판사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죠.”

아너 소사이어티 2,000호, 서정훈 대표

기부는 가장 명예로운 실천입니다



사랑의열매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가 2,000호 회원을 맞았다. 2,000호의 주인공은 제너럴바이오(주)·지킴(주) 서정훈(45) 대표다. 서 대표는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사랑의열매 예종석 회장에게 아너 인증패를 받으며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됐다. 서 대표는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한 사람으로서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된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이익을 추구하고 돈을 버는 경제활동은 목표 실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 행위이지만, 시대정신과 기업이 정신이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을 미칠 때 더욱 명예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부를 헌신이 아닌 명예로운 실천이라 생각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전파되기를 바란다”는 바람도 전했다.

2007년 11월에 설립한 제너럴바이오(주)는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능성 식품, 코즈메디컬 화장품, 친환경 유아용품 및 생활용품 등을 만드는 바이오 벤처기업으로 장애인 고용에도 앞장서고 있다. 지킴(주)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에 노하우를 알려주기 위해 설립한 공정 플랫폼 기업이다. ‘행복한 동행, 아름다운 가치 창출’은 서정훈 대표 개인의 철학을 넘어 회사의 비전이 되었다. 제너럴바이오(주)는 현재



자체 유통망을 보유해 연 매출 1,000억 원 이상의 업체로 성장했다. 2014년 대통령 표창과 2016년 제50회 납세자의 날 ‘아름다운 납세자’ 장관 표창, 2017년 제54회 무역의 날 국무총리 표창 등을 받기도 했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2007년 12월 사회 지도층의 나눔 참여를 선도하고, 한국형 고액 기부 문화를 창출하기 위해 결성한 클럽으로 출범 11년 만에 2,000호 회원 가입이라는 경사를 맞았다. 2012년 3월 100번째 회원(쌀눈조야 주기영 대표) 가입 이후 빠른 속도로 회원이 늘어나 2014년 5월 499·500호(배기선·김선화 부산 치과 의사 부부)가 탄생했고, 2015년 12월 1,000호(이심 대한노인회 회장) 회원을 배출한 지 불과 3년 만에 2,000호 회원을 맞이했다. 현재 아너 소사이어티의 누적 기부 금액은 약 2,223억 원에 이른다. 최근에는 가족이 함께 가입하는 사례도 늘어 현재 부부 회원 153쌍과 패밀리 아너 48가족 등 모두 201가족 440명이 회원으로 등록돼 있다.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기업인 제너럴바이오(주)·지킴(주) 서정훈 대표를 2,000호 회원으로 맞이하게 된 것은 더욱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가수 멜로망스 김민석, 나눔리더 가입

희귀병 환자에게 희망의 노래 전해지기를

지난해 가요계 최고 아이콘을 꼽으라면 감성 듀오 멜로망스를 빼놓을 수 없다. 멜로망스는 2018년 디지털 음원 차트 연간 순위 100위 안에 '선물', 'You', '동화', '질어져', '육십' 등 다섯 곡을 올려 놓으며 그해 가장 많은 히트곡을 내 아티스트로 등극했다. 특히 감미로운 음색이 특징인 '선물'은 2017년 7월 발매된 곡인데도 2018년 차트에서 7위를 기



록하며 이번의 아이콘이자 역주행의 아이콘으로 부상했다. 이처럼 가요계의 다크호스로 떠오른 멜로망스의 보컬 김민석이 지난해 12월 사랑의열매에 5,000만 원을 기부하며 나눔리더로 가입했다. 나눔리더는 사랑의열매와 함께 연 100만원 이상의 나눔 실천으로 나눔 문화를 선도하는 개인 기부자를 일컫는 말이다. 이로써 2019년 첫 번째 나눔리더는 멜로망스의 김민석이 등록되었다.

그는 “작년에 많이 받은 사랑을 이렇게나마 돌려드리고자 한다”며 “부족한 저를 아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는 소감을 전했다. 김연순 사랑의열매 사무총장은 “부드러운 노래만큼이나 마음이 따뜻한 김민석 님을 나눔리더로 모시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많은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노래와 따뜻한 나눔으로 우리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그는 특별히 루게릭병과 파킨슨병 환자들의 의료비 지원 사업에 써달라는 의견을 밝혔다. 가입식에서도 “루게릭병과 파킨슨병 등 희귀병 환자들의 투병 생활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며 “나의 작은 나눔이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용기를 드릴 수 있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루게릭병과 파킨슨병은 대표적 신경 퇴행성 질환으로 신경세포들이 소멸하면서 뇌 기능 이상을 일으킨다. 루게릭병은 치료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희귀성 질환으로, 매년 10만 명 중 2명이 발병하며 우리나라에도 3,000여 명의 환자가 있다. 얼음물을 뒤집어쓰는 ‘아이스버킷 챌린지(Ice Bucket Challenge)’ 기부 캠페인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 가요 차트 역주행에 성공한 그는 2019년에는 “차트 줄 세우기도 바란다”며 바쁜 활동 중에도 “봉사 활동이나 선교 활동도 원 없이 하고 싶다”는 바람을 비쳤다. 그의 나눔이 이벤트가 아닌 일상이라는 사실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다. 역주행의 아이콘을 넘어 대중에게도 널리 사랑받는 최고의 듀오로 자리매김한 멜로망스의 감미로운 음악과 이웃 사랑이 벌써부터 기대된다. ❀



기적도 대출이 되나요? 주빌리은행

소중한 사랑의열매 기부금들은 어떤 일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 '땀큐, 사랑의열매'를 통해 만나 볼 첫 번째 배분기관 주빌리 은행이다. 부실 채권을 소각하고, 채무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빚을 갚고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시민단체다. 사람들은 기적을 대출하는 은행이라고도 한다.

IMF 외환 위기 시절, 사업에 실패한 A 씨는 아내와 당시 초등학교생이던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 단칸 월세방으로 들어갔지만, 단 하루밤도 방 안 형광등을 켜본 적이 없다. 시도 때도 없이 빚 갚으라며 찾아오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 때문이었다. 험한 말, 무서운 협박은 일상이었다. 일을 마치고 귀가할 참이면 골목 어귀에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서성였다. 그러면 한참 동안 밖을 돌아 새벽녘이 되어야 집에 들어갈 수 있었다. 아이들은 단단히 일러둔 대로 밤이 되어도 불을 켜지 않고 킁킁한 방에서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다. A 씨는 그 어두운 방에서 무서움에 떨던 아이들을 안고 매일 몰래 피눈물을 흘렸다. 어려운 형편에도 A 씨는 포기하지 않고 닦치는 대로 일했고, 돈이 생기는 대로 빚을 갚아나갔다. 그렇게 근 20년을 지냈지만, 어느 날 또 빚을 갚으라는 알 수 없는 우편물에 삶을 포기하고 싶었다. 비록 위태롭지만 놓지 않고 있던 희망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 A 씨가 마지막으로 찾은 곳이 주빌리은행이다.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데, 빚을 진 채무자를 빚 갚지 않으려 하고 빚을 무조건 탕감받고 싶어 하는 책임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누구보다 자신들의 힘으로 빚을 갚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갚고 싶어도 이런저런 이유로 당장 갚지 못할 때, 그럴 때 누군가가 도와주었으면... 내가 내 빚을 제대로 다 갚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주빌리은행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겁니다.”

주빌리은행 김미선 상임이사(이하 김미선 이사는 주빌리은행이 단순히 갚을 수 있는 빚까지 탕감해준다는 세간의 오해에 대해 설명하면서, 채무자의 강한 책임감을 이야기했다.

사람을 살리는 대출

A 씨가 처음 은행을 통해 대출받은 빚은 십수 년간 부실채권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대부업체에 팔려나갔고, A 씨가 다 갚았거나, 갚지 않아도 되는 불법 연체이자 붙은 새로운 빚까지 생겨난 상태였다. 주빌리은행은 A 씨의 채무 상황을 확인하고 채권사와 조정을 통해 마지막 채무까지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추석을 앞둔 때였는데, A 씨는 명절에 주빌리은행 직원들에게 “20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과 웃으며 보낸 추석”이었다며 감사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 A 씨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는 주빌리은행 사람들은 그 문자 한 통에 한동안 몽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주빌리은행은 쉽게 빚을 낼 수 있는 사회구조와 불평등한 금융 환경에서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채무자에게 우호적인 금융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민 단체다. 흔히 빚 탕감 퍼포먼스 등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제 하는 일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채무자가 사회로 다시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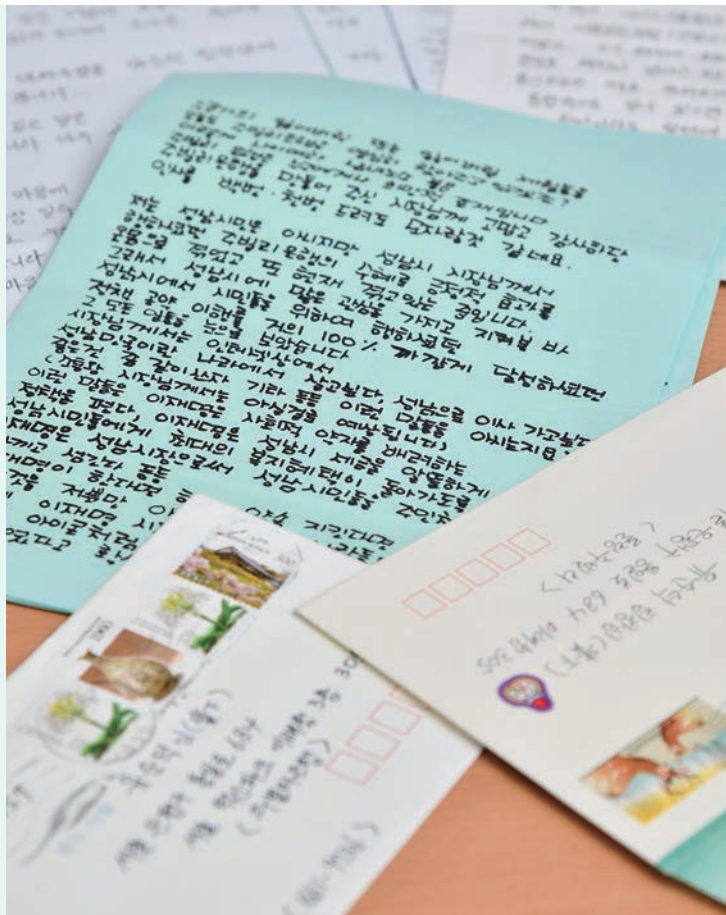
“은행이라는 이름만 듣고 대출되냐고, 돈 빌려달라고 하는 전화가 많이 오는 게 현실인데요, 저희는 개인에게 직접 돈을 대출해주는 금융사가 아닙니다. 비단 빚을 진 채무자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빚에 대해 잘 몰라요. 빚은 무조건 갚아야 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빚을 지면 죄인이 됩니다. 자신에게 최소한의 권리조차 없는 줄 알아요. 금융사나 대부업체조차 자신들이 어떤 행위로 빚을 받아내도 그건 채무자가 감내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세상에 사람보다 중요한 빚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김미선 이사는 일반인에게겐 어렵지만 한 금융의 메커니즘 탓에 선의의 피



해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했다. “애초에 금융회사가 상환 능력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고, 몇 달 연체하더라도 채무자 상황을 보고 상황을 유예해주어야 하는데, 현재는 3개월 연체하면 바로 다른 곳으로 채권을 팔아버리는 구조”라면서, “쉽게 돈을 빌려주고 추심만 열심히 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빚은 단순하지 않다. 빚은 한 가정을 파탄내고,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기 십상이다. 그렇게 악랄하게 빚을 회수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막아야 한다. 주빌리은행은 ‘채무자에게도 최소한의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데 가장 심혈을 기울인다. 채무자 상담이 주빌리은행의 핵심 업무 중 하나인 이유다.

당신의 기적이 승인되었습니다

“빛 탕감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래되었죠. 그 옛날에도 사람의 형편을 보고, 왕이나 부족장 또는 동네 어른신이 탕감이든 유예든 도움을 주며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저희 쪽에



상담 요청을 하신 채무자분들을 보면 대부분 몸은 병들어 있고, 가족은 무너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제가 오히려 반문하고 싶습니다.”

사랑의열매 지원이 사업의 중심태

김미선 이사는 “주빌리은행의 부실채권 소각 자금은 사랑의열매 지원금과 개인의 십사일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주빌리은행을 지원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대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벼랑 끝에 내몰려 겁에 질린 채무자들과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려는 대부업체 사이에서 주빌리은행은 늘 살얼음 같은 업무의 연속이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주빌리은행 사람들이 가장 기쁠 때는 성실한 채무자들이 부실채권을 소각한 후 자신이 정말 그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하며 “기적이 일어났다”며 감격해하는 모습을 볼 때다. 부실채권과 개인 간 거래의 돈은 성격이 다르다. 은행은 상황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돈을 받고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일종의 권리를 가져 없이 팔아버린다. 마치 노예 문서처럼 은행에서 신용 정보업체나 대부업체 등으로 팔려나가고, 또 이 업체들은 얼마간의 돈을 받고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팔아넘긴다. 100원으로 산 돈을 받아낼 권리를 통해 개인에게 연체이자며 법정 비용 등을 마구 붙여 1억 2,000만 원을 요구할 수 있는 이유다. 100원에 산 권리로 대부업체는 개인으로부터 1,000만 원만 받아내도 엄청난 수익을 거두는 셈이다. 놀랍게도 이 또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합법적 금융이다. 이 빛이라는 돈의 카테고리 안에는 또 법원과 경찰, 기관들이 있고 여러 대부업체와 전주가 얽여 있으며 온갖 사기와 편법, 불법이 판치는



한 편의 누아르다. 개인이 대응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 것이다. 그 가운데 주빌리은행이 작은 깃발을 꽂은 것이다. 그런 탓에 밤길 조심하라는 협박 팩스를 받는 일은 주빌리은행에선 실제 일어나는 일이다. 김미선 이사는 주빌리은행의 최대 목표는 “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같은 단체가 일하지 않아도 되는 건강한 사회가 우리의 목표니까요. 갚을 수 있는 빚은 갚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갚을 수 없게 되었을 때는,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맞습니다. 연체되길 기다렸다가 악착같이 받아내거나 또는 받아내지도 못하고 한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내몰리게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빌리은행을 찾는 모든 채무자들의 소망은 ‘빚을 정리해서 제가 갚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도와주시겠습니까?”

망하는 게 목표라는 주빌리은행의 SOS, 작지만 큰 외침이다. ❀

기적을 승인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LETTER 1

“딸과 함께 살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어요”

저는 건설하게 가게를 운영하다 거래처에 큰돈을 떼이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빚쟁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시 재기해보려 했지만, 제가 주변 정리를 할 틈도 없이 무섭게 빚 독촉이 시작되더군요. 무서운 빚 독촉을 받으며 살다 보니 이혼도 하게 됐고, 하나뿐인 딸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딸아이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고시원 하나를 얻고, 밤낮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다 딸아이가 18세가 되면서 주거 급여로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보증금도 없어 대출을 받았는데, 알 수 없는 대부업체에서 보증금을 압류한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보증금을 대출해준 은행에선 만기 연장이 불가하다며 퇴거하라고 하고요. 당시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였고, 무리하게 일하다 뇌졸중으로 쓰러져 거동조차 불편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길거리에 나앉아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딸아이를 생각하니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때 도움을 요청한 곳이 주빌리은행이었습니다. 주빌리은행에선 제가 딸아이를 임대아파트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대부업체와 채무 조정을 해주고, 보증금 대출 연장도 가능하도록 은행과 협의해주었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라고만 하는 은행들을 상대로 몸도 성치 않은 제가 정리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임대아파트에서 딸아이를 계속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주빌리은행의 전화를 받았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와 제 딸을 도와주신 이름 모를 많은 후원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 서울에 사는 A 씨

LETTER 2

“제가 일해서 번 돈으로 꼭 갚을 거예요”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리고 뇌졸중으로 몸 한쪽이 마비되어 거동조차 불편하지요. 물론 제게도 건강한 몸으로 왕성하게 사업을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패 후 다중 채무자가 되었고, 주민등록까지 말소되어 그야말로 인생의 밑바닥까지 추락했지요. 그래도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돈이 모이는 대로 빚을 갚았습니다. 빚을 제 힘으로 다 갚고 정상적인 삶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고, 주민등록이 정상적으로 된 그런 생활요. 하지만 빚은 갚아도 끝이 없었고, 빚을 만하면 알 수 없는 기관들로부터 추심 우편이 날아들었습니다. 한번은 어딘가로부터 제 통장을 압류한다는 우편물을 받고, 통장에 있던 전 재산 500만 원을 매일 가방에 넣어 몸에 지니고 다닌 적도 있습니다. 그 돈은 제가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 싶어 모으던 보증금이었습니다.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주빌리은행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돈을 갚을 테니 불안하지 않게 내 빚을 정리해달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돈으로 주빌리은행의 도움을 받아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모르는 추심 우편물이 온다면 겁내지 말고 주빌리은행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한마디만으로도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습니다. 늘 혼자 불안에 떨기만 했거든요. 여전히 가난하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든든합니다. 예전처럼 알 수 없는 추심 우편물에 벌벌 떨지 않아도 되니까요. 제 빚은 저의 죄라고만 생각했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세상이 고마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 천안에 사는 C 씨

노트 세 권과 연필 두 자루

- 농부아너소사이어티 회원배준식



지독하게 가난한 삶이었다. 옛 기억이라고는 배고프고 서럽고 힘든 게 전부다. 먹고살 만해진 지금, 나는 이름난 갑부도 대단한 사람도 아닌 그저 인삼 농사를 짓는 평범한 농부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어디 하늘에서 푹 떨어졌거나 황재한 돈도 아니고 힘들게 땀 흘려 번 돈을 왜 기부하냐고. 아깝지 않느냐고. 그렇게 가난한 삶을 살아왔고, 지금도 뭐 그리 대단한 부자도 아니면서 왜 남 돕는 일을 멈추지 않느냐고 말이다. 가끔은 왜 돕는지 열변을 토하기도 하고, 가끔은 그저 멋쩍게 웃어넘기기도 한다. 기부라고 하면 대개 남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하든지, 내가 행복해지는 일이라든지 하는 말을 하곤 한다. 듣는 사람에게겐 뻔한 말이라 다른 말을 찾고 싶었지만, 사실 이 말만큼 정확한 표현이 없다. 정말 내가 행복하다! 그렇기에 이 행복한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다. 흔히 “해본 사람만 안다. 해본 사람이 한다”는 말이 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줄 줄 알고, 도움을 받아본 사람이 도움을 주기도 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 말에 꼭 맞는 사람이 바로 내가 아닐까 싶다.



신 네살에 떠난 어머니와 아픈 동생

가난의 기억을 열거하자면 원고지 몇 장이 필요할까, 그 이야기가 끝나기는 할까 싶을 정도다. 그중에서 여전히 가슴 한쪽에 아프게 남아 있는 일이 어머니의 죽음이다. 어머니는 신네 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다. 지금이라면 바로 병원에 가 조치를 취하면 건강하게 살 만한 작은 질병이었다. 한마디로 병원 갈 돈이 없어 돌아가신 것이다.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나니 동네 어르신 한 분이 찾아와 어머니가 남긴 빚이 있다며 갚아달라고 요구했다. 증빙할 만한 서류 같은 게 있진 않았고, 그저 빚이 있다는 그 사람의 말뿐이었지만 나는 응당 갚겠다고 말했고, 그 빚을 갚아나갔다. 이자가 5~6부 하던 시절이었는데, 그분은 돈을 다 갚는 그날 그 시간까지 이자를 계산해 받아서 갔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야박함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 어머니는 누구보다 부지런하신 분이였다. 어려운 형편에도 인정을 잃지 않고 자식들을 사랑으로 키우셨다. 하지만 집에 몸져누운 아픈 동생이 있어 가난을 면하긴 역부족이었다. 어머니가 남긴 빚을 갚으면서 만약 내가 부자가 된다면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도움을 많이 받기도 했다. 언젠가 어느 교회 봉사단체에서 노트 세 권과 연필 두 자루를 받았는데, 공책 한 권 제대로 살 돈이 없었던 우리 집 형편에 그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 그 따뜻하던 기억은 내 안에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 있다.

아들 결혼 축의금 기부하며 만난 사랑의열매

북한에 쌀을 보낸 적이 있다. 중국 여행을 갔다가 우연히 두만강 건너에 있는 굶주린 북한 아이들을 보았는데 세상에, 그곳에 어린 시절 굶주린 내가 있는 게 아닌가. 그걸 보곤 가만 있을 수 없었다. 쌀을 보내는 과정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겪은 일과 내가 받은 마음을 지나칠 수 없었다. 이것이 내 기부의 시작이자 끝이다. 내가 어려움을 겪어왔기에 그 어려움을 잘 알고, 도움을 받아왔기에 그 따뜻함을 잘 안다. 그래서 나는 기부를 한다. 그리고 이 행복하고 충만한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으면 하는 마음이 사랑의열매 전북 1호 아너 소사이어티가 되는 영광으로 이어졌다. 삼 형제를 둔 나는 막내아들 결혼을 앞두고 축의금을 좋은 곳에 기부한다면 사람들도 기부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을까 싶었다. 다행히 가족도 흔쾌히 따라줘 결혼식 축의금을 기부할 수 있었는데, 그때 인연을 맺은 곳이 사랑의열매다. 그동안 아무도 모르게 남 돕는 일을 해온 나는 이런 일을 널리 알려 많은 사람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사랑의열매를 통해 배웠다. 그래서 남들 앞에서 연설도 해봤고, 이렇게 글도 쓴다. 여전히 부끄럽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동참하길 바라는 마음에 늘 용기를 내본다. 얼마 전 보일러가 고장 나 한동안 고생했다. 그러니 추운 겨울을 힘들게 보내고 있을 사람들이 생각났다. 하지만 굳이 어려움을 겪지 않았더라도, 사랑을 받아온 당신이라면 내 이야기를 통해 기부하길 권해본다. 당신의 작은 관심이 사람 하나를 키운다. 아주 뜨겁게 말이다. - 전북 지역 첫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배준식



2017년 사랑의열매 연중 광고에 출연한 배준식 아너



에듀윌, 지역사회에 꿈에 든든한 날개를 달아준다

차가운 칼바람에 마음까지 얼어붙는 듯한 이 겨울을 넉넉한 나눔으로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는 착한기업이 있다. 2009년부터 사랑의열매를 통해 기부를 이어오고 있는 에듀윌의 아름다운 선행 이야기.

“교육은 그대의 머릿속에 씨앗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씨앗들이 자라나게 해준다.” 철학자 칼릴 지브란(Kahlil Gibran)의 말이다. 종합 교육 기업 에듀윌은 이렇듯 소중한 교육의 기회를 누구나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에듀윌은 몸이 불편한 이나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이들이 어디서나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뜻에서 창립했다. 이런 사려 깊은 마음은 창립한 지 2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하다. 1992년 설립한 에듀윌은 공무원 시험은 물론 공인중개사 등 각종 자격증 시험, 취업 시험 등 좀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등불 같은 존재로 성장해왔다. 교육 연구와 혁신을 거듭해온 결과 교육 기업으로서 유일하게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매년 무수한 합격자를 배출하는 등 모범적인 교육 기업으로 우뚝 섰다. 그러나 에듀윌은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 높고 더 넓은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꿈을 현실로 만드는 교육 기업’을 지향하며 다

양한 사회 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것.

2004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을 위한 검정고시 지원을 시작으로, 매년 새로운 형태의 나눔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2009년부터 사랑의열매를 통해 현재까지 27억 원 상당의 기부를 이어오고 있으며, 2014년에는 대한민국 세종대왕나눔봉사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2017년에는 보다 체계적인 나눔 사업을 펼치기 위해 에듀윌 사회공헌위원회를 조직했다. 현재 이를 통해 임직원 나눔펀드 기금 조성, 사랑의 쌀 나눔, 검정고시 지원, 장학재단 운영, 대학생봉사단 등을 운영해 지역사회에 다방면으로 도움의 손길을 전한다. 에듀윌 정책동 대표는 “작지만 꾸준한 활동이 모여 사회에 밝은 빛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나눔 활동을 전개해왔다”면서 “교육에서 소외된 사람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새로운 형태의 사회 공헌 활동을 발굴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1 바리스타 교육 중 장애인 교육생이 직접 만든 커피
2 임직원 나눔펀드로 바리스타 양성 교육을 지원받은 장애인 교육생들



3 에듀윌 사회공헌위원회와 서울 사랑의열매,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한우리보호작업장의 '장애인 취·창업 교육 사회공헌' 협약식 체결 현장
4 시각장애인 안마 직무 기술 향상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서 안마 실습중인 교육생들

임직원 나눔펀드

장애인의 삶에 희망을 심어주는 직업교육 선물

에듀윌은 임직원이 매월 급여의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회사가 일대일 매칭그랜트로 펀드를 조성하는 임직원 나눔펀드를 운영 중이다. 2015년 마음 따뜻한 몇몇 에듀윌 직원의 제안으로 시작한 나눔펀드는 첫째 2,600만 원을 시작으로 2016년 3,600만 원, 2017년 4,100만 원, 2018년 5,100만 원 적립을 달성하며 해마다 기금이 늘고 있다. 이렇게 모인 소중한 기금은 서울 사랑의열매를 통해 꼭 필요한 곳에 소중하게 전달한다.

2018년에는 서울 사랑의열매와 함께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한우리 보호작업장에 장애인 취업·창업 교육을 지원했다.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실시한 '시각장애인 구직자를 위한 안마 직무 기술 향상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안마 직종에 취업하길 원하거나, 현재 근로 중이나 역량을 강화해 이직을 희망하는 시각장애인 1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교육생들이 전문 안마 직무 기술을 습득하도록 했다. 또 취업 후 직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직업 소양 교육, 자기 계발 교육, 자기 관리 교육 등도 실시했다. 3개월간의 교육이 끝난 후 2019년 1월 현재는 교육생에게 취업 알선 서비스를 실시해 실제 취업 성공으로 이어지도록 마무리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오분희 씨는 안마 훈련과 모의 면접, 면접 준비 교

육까지 성실히 받은 후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의 도움으로 JB우리카 피탈 헬스키퍼로 취업하는 데 성공했다. 오분희 씨는 “안마 기술, 면접 기술 모두 부족하다고 느껴서 지원했는데 교육을 받고 나니 자신감이 생겼었다. 덕분에 드디어 첫 출근의 기쁨을 맛보았다”며 활짝 웃었다. 한우리보호작업장을 통해서는 청각·발달 장애인을 위한 바리스타 양성 교육을 지원했다. 1월 말까지 전문 바리스타가 되기 위한 실습 교육을 하고, 이후 한우리보호작업장이 운영하는 늘봄카페 취업까지 독려하는 과정으로 장애인이 바리스타로서 삶의 자립성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다. 불편함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청각장애인을 위해 매회 수화통역사를 초빙해 수업을 진행했으며, 보호자의 따뜻한 지지와 도움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은 어머니와 함께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이러한 배려 덕분에 교육장에는 늘 웃음꽃이 피었다. 한우리보호작업장 지도형 담당자는 “처음에는 서로 서먹서먹해서인지 조용했는데, 날이 갈수록 교육생들끼리 부쩍 친해져서 교육장 밖에서도 웃음소리가 새어 나올 정도였다. 모두 너무 즐거워하면서 열심히 배우셨다”라며 화기애애한 수업 분위기를 전했다.

에듀윌 임직원 나눔펀드는 올해도 계속된다. 우리 사회에 복지 사각지대와 교육 소외자가 없도록, 이 문제를 해소하는 데 나눔펀드 기금을 쓸 예정이다.



사랑의 쌀 나눔

매월 100포대씩, 배고픈 이웃의 마음까지 채워

배고픈 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나눔 활동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에듀윌은 서울 사랑의열매를 통해 2011년부터 지금까지 전국에 생명을 지켜주는 사랑의 쌀을 매월 100포대씩 기부하고 있다. 수혜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실질적인 나눔을 베푸는 것을 목표로 시작된 사회 공헌 활동이다. 매월 100포대라면 결코 적지 않은 양. 부담

이 될 법도 한데 쌀값이 무섭게 폭등하던 때에도 기부하는 수량을 줄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그간 마포구 독거노인, 금천구 저소득 주민 등 끼니가 갈급한 곳에 나눠준 사랑의 쌀 수량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지금까지 8년간 기증한 쌀이 총 9,722포대. 이를 한 끼 식사로 환산하면 무려 48만 인분(200g 기준)에 달할 만큼 아낌없이 나눴다. 에듀윌의 사랑이 뚝뚝 담긴 뽀얀 쌀이 배고픈 이웃의 소중한 피가 되고 살이 되었음은 당연하다.

검정고시 지원

끊어진 학업 기회를 사랑으로 잇다

교육 기회는 평등해야 마땅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경제적 이유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학업을 중단한 안타까운 아동·청소년이 많다. 에듀윌은 이런 교육 소외 이웃을 위해 2004년부터 검정고시 지원 사업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성공적으로 동지를 틀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법무부와 경기 사랑의열매를 통해 나눔을 실시하는 것. 법무부를 통해서서는 법무부 산하 전국 보호감찰소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교재와 동영상 강의를 지원한다.

경기 사랑의열매와 진행하는 사업은 현재 두 가지.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서서는 2016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지원 사업으로 검정고시 온라인 수강권과 도서를 지원하고 있다. 2017년에는 지원센터 25개소를 통해 청소년 715명을 지원, 2018년에는 22개

소 898명의 청소년에게 검정고시를 지원했다. 올해는 인원을 대폭 늘려 22개소 1,458명의 청소년에게 검정고시 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복지재단을 통해서서는 저소득 근로 청년에게 취업 도서를 지원한다. 사전에 공지한 에듀윌 도서 목록을 보고 희망 도서를 신청하면 선착순으로 선정해 도서를 보내준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교재, 시사일반상식, 20대 기업 직무적성 통합 도서 등 요즘 취업을 위해 필수인 알짜배기 도서들을 제공하고 있다. 경기복지재단의 조운희 과장은 “어린 시절 준비도 없이 부모가 되어 학업을 포기하고 생업 전선에 뛰어난 청년이 더 이상 위험한 배달 일로만 생계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기회, 몸이 아파 경제력이 없는 부모를 대신해 가장이 된 청년이 자신의 꿈을 꺼내놓을 수 있는 기회... 그런 귀중한 기회가 경기 사랑의열매를 통해 지원받은 에듀윌 도서로 만들어지고 있다니 가슴이 따뜻해진다”라고 전했다.

장학재단

학업에만 열중하도록

중학교 3년 내내 장학금 지원

에듀윌은 장학재단도 운영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에 열중하지 못하는 학생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에서 출발해

2009년 서울시교육청의 설립 허가를 받아 설립했다. 매년 중학생 10명을 선정해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인당 연간 12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장학재단은 2010년에 처음 모집을 시작해 현재 9기까지 총 90여 명의 학생을 지원해왔으며, 올해 10기 장학생 선발을 앞두고 있다.

대학생봉사단

청소년 눈높이 멘토링과 교육 봉사 활동

2018년 새롭게 발족한 에듀윌 대학생봉사단은 에듀윌이 주최하고,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가 주관하며, 법무부가 협력해 만들었다. 2018년 4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약 17주간 수도권 소재 4개 보호관찰소에서 청소년 20명에게 검정고시 시험 대비 교육 봉사 활동과 멘토링을 실시했다. 또래의 시선에서 청소년을 이해하고 소통한 덕분인지 결과도 고무적이었다. 최종적으로 검정고시에 16명이 응시해 3명이 최종 합격하고, 13명의 청소년 또한 과목별로 부분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대학생봉사단 단원들은 자발적으로 보충수업을 하고 개

별적으로도 담당 청소년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멘토링을 이어갈 정도로 진심 어린 태도로 봉사에 임했다. 대학생봉사단은 이 밖에도 에듀윌의 신입 사원, 임직원 멘토들과 함께 서울 양천무료급식소, 영등포무료급식소에서도 봉사 활동을 하는 등 활발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에듀윌 사회공헌위원회는 그동안 교육 기업다운 사회 공헌 활동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2019년에도 교육을 통한 자립 지원이라는 큰 틀에서 다양한 곳에 따뜻한 지원의 손길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그동안 에듀윌 하면 '에듀윌은 합격이다!'라는 구호가 가장 먼저 떠올랐다. 이제 보니 '에듀윌은 사랑이다!' 그것도 아주 크고 깊은 샘물 같은. ❀



1 법무부 보호관찰 청소년을 위한 검정고시 지원 기증식
2 무료급식소에서 열심히 배식 봉사를 하고 있는 에듀윌 대학생봉사단



사회성과연계채권 SIB

긍정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착한 투자

사회성과연계채권(이하 SIB, Social Impact Bond)은 세상에 등장한 지 9년이 채 안 되지만,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론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다. SIB는 정부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면서 더 많은 사회 과제를 해결할 수 있게 만드는 혁신적 수단이며, 결국 이러한 장점은 납세자인 국민의 이익으로 귀결된다.

글 팬임팩트코리아곽제훈 대표



지금까지 정부가 예산을 쓰는 방법은 공공사업의 성과와 무관하게 사업 비용으로 무조건 지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예산을 사업 비용으로 집행함으로써 실질적 성과와는 무관하게 납세자의 세금을 사용해왔으며, 급증하는 공공사업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운 예산 제약의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어갔다. 그리고 비용 중심의 행정은 예산을 사용하는 궁극적 목적인 사업 목적의 달성과는 무관한 일에 더 많은 관심과 자원이 집중되도록 만들기 때문에 공공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SIB는 민간 투자로 사회문제를 개선하는 공공사업을 수행한 뒤, 성과를 달성했을 때에만 정부가 사후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투자자에게 상환해주는 계약 또는 체계를 말한다(이름과 달리 실제 채권은 아니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정부는 성공한 사업에만 납세자의 세금을 사용하게 된다. 그리고 남에게 보이기 위한 형식적 절차나 전시 행정이 아닌 성과 목표 자체에 집중함으로써 실질적 문제의 개선 가능성도 높인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확산

SIB는 여러 혁신가가 제시한 사회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영국의 소셜 파이낸스(Social Finance Ltd.)라는 회사가 종합해 2010년 영국 법무부와 함께 세계 최초로 도입하고 세상에 알렸다. 이후 미국과 호주는 물론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등 여러 유럽 국가가 이를 도입했고, 점

차 SIB의 장점이 알려지면서 지금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 전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SIB가 탄생한 이래 OECD, 세계은행, G8과 같은 국제 협력의 장에서도 그 필요성이 논의되고 각국에 SIB의 도입을 권장하기도 했으며, 최근 미국은 SIB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성과기반보상을 위한 사회성과협력지원' 연방법을 통과시키기까지 했다.

참고로 미국의 연방법은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오바마 정부 때 하원을, 트럼프 정부 때 상원을 통과함으로써 SIB는 정치적 진영과 관계없이 범사회적으로 수용하는 대표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해당 법안을 공동 발의한 민주당의 존 델레이니(John Delaney) 의원은 "SIB를 통해 정부는 성과와 상관없이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성과에 예산을 지출하게 된다"라고 했고, 공화당의 토드 영(Todd Young) 의원은 "정부가 더 많은 사람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든,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고 생각하든 SIB는 두 가지 모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라고 언급했다. 이 사례는 분명 우리 정치와 사회에 주는 시사점이 있다.

아시아 최초로 도입, 다양한 사회문제에 접근

다행인 것은 SIB 시장에서만큼은 우리나라가 아시아 지역을 선도한다는 점이다. 2014년 서울시의회는 SIB 도입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



고, 2015년 첫 사업을 의결해 기획자이던 팬임팩트코리아는 서울시 사업의 운영 기관이 되었다. 이는 아시아 최초의 사례가 되어 한국보다 늦게 SIB를 도입한 일본에서도 우리나라 사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우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후 국내 다른 지자체에서도 SIB를 도입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지자체들의 협력 기구인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가 발족되기도 했다. 중앙 부처 중에서는 행정안전부가 SIB에 관심을 가지고 지자체를 위한 지원 정책을 만들고 있는데, 예를 들면 SIB를 위한 지자체의 예산 과목을 신설하고,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SIB를 넣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회에서도 SIB 입법에 대한 준비와 논의가 있었으며, 미국 사례처럼 여야 의원의 공동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존 법령의 개정을 통한 SIB 활성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러한 법안을 마련한다면 우리나라 지자체가 보다 확실한 근거와 명분을 가지고 SIB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다양한 사회문제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획기적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

그렇다고 남은 과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제도가 정착되고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하며, 무엇보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더 고민해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에 사회적 금융이나 임팩트 투

자 개념이 알려지고, 이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가 증가하고 있는데, 아직 국내 임팩트 투자 시장은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와 비교할 때 매우 작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SIB 확산에도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SIB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투자자에 대한 합리적 인센티브 제공과 더불어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투자자도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이고 개척하는 획기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세계적 흐름과 현황을 볼 때 SIB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 앞에는 이를 받아들이고 시장을 선도하느냐, 완전히 무르익은 뒤 흐름에 밀려 쫓아가느냐 양자택일의 선택지가 놓인 것과도 같다. 결국 그 선택에 따른 우리의 미래 모습은 다를 것이다. ♡

팬임팩트코리아는

사회문제 해결의 혁신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사회성과연계채권 사업의 기획과 제도화, 공익적 가치의 확산을 주요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다. 서울시 SIB 사업의 운영 기관이며, 세계 최초로 SIB의 유동성 제약을 해결한 스마트 SIB의 발행 기관이다.

추운 겨울 허기진 속을 달래준 뜨거운 위로

어머니표 얼갈이배추된장국

수렵과 채집 시대 이후 펼쳐진 곡물 재배의 역사와 함께 빵과 밥의 역사도 시작되었을 테다. 신석기시대에 아나톨리(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처음으로 호밀과 귀리를 재배했다고 한다. 이는 청동기시대와 철기시대를 거쳐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인류를 살려온 빵과 밥의 역사는 그야말로 유구하다.



어머니의 삶과 닮은 내 식성

모두가 알다시피 서양의 주식은 빵이고, 동양의 주식은 밥이다. 나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태어나고, 그런 탓에 밥은 내 운명이다. 나는 날마다 밥을 먹고, 그 밥심에 기대어 오늘날까지 살아왔다. 밥과 몸은 하나다. 내가 먹은 밥이 곧 나인 것이다. 밥은 허기진 위를 채워 포만감을 주고, 활력과 함께 침울한 기분을 유쾌하게 만든다. 맛있는 밥을 먹을 기대로 입안에는 침이 피고 나도 모르게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갓 지은 밥은 몸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어디 그뿐인가. 상심한 마음에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며, 좋은 음식은 몸을 이롭게 한다. 어떤 밥은 신경쇠약이나 외로움을 앓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보약(補藥)이 되기도 할 테다.

‘집밥’이란 말은 예전에는 없었다. 굳이 이런 조어(造語)가 널리 통용되는 것은 그만큼 집 밖에서 먹는 밥이 많다는 증거다. 집밥은 대개 어머니의 밥이다. 어머니 밥은 자극적인 맛이 없이 순한 밥이다. 내 어머니는 한반도 내륙에서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나 자랐다. 땅을 갈아엎어 씨를 뿌리고 자란 것을 먹고 살아온 분이다. 대대로 농경 사회의 유습 속에서 삶의 부피를 키워온 터라 식성도 농촌 토박이 범주를 넘지 않는다. 그런

어머니의 맘으로 태어나 그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으로 살과 뼈를 빚은 내 식성은 한반도 정주민으로 삶을 꾸려온 어머니와 닮을 수밖에 없다. 이것도 내 운명이다.

겨울 흰 책방과 어머니의 된장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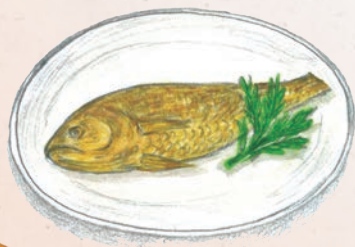
나는 흐린 하늘에서 쌀가루 같은 첫눈이 푸슬푸슬 내리는 초겨울 무렵, 어머니가 끓여주신 청국장을 정말 좋아했다. 김장 끝나고 싸라기눈이 창호지 문에 타닥타닥 들이치는 초겨울 저녁, 그해 거둔 햅쌀로 갓 지은 밥과 함께 뜨거운 청국장 한 숟가락을 떠서 입안을 거쳐 식도로 넘어가는 그 맛은 부드럽고 깊고 달콤하다. 청국장과 밥을 떠넘길 때 나는 삶과 세상을 긍정하며, 남에게는 관대한 사람으로 변한다. 급전을 빌린 뒤 사라진 고등학교 동창을 우연히 만나더라도,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실수도 하는 법이지. 괜찮아, 이 친구야. 힘내, 힘내라고!”라며 그의 어깨를 툭툭 두드려줄 것이다.

단 하나 잊을 수 없는 집밥의 기억이라면 스무 살 언저리에 있는 기억을 꼽을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맹렬하게 가난하던 시절, 식욕은 푸르렀지만 나는 자주 굶었다. 나는 호주머니에 돈 한 푼 없었을 뿐 아니라 세상살이의 쓴맛도, 사업의 실패도, 사

량의 쓰라림도 겪어보지 못한 청년이었다. 불가능한 것을 갈망하고, 세상의 나쁜 관행에 반항하던 내게 봄날의 모란과 작약은 화사했고, 젊은 여자들의 웃음소리는 심벌즈처럼 울렸다. 하지만 나는 그런 아름다운 것으로 이루어진 세상에 견뎌 처지가 누추하다고 자학했다. 그랬으니 나는 낯선 세상에 섞여 들지 못한 채 백수로 걸돌았다.

어느 겨울날 오후, 오직 문학을 향해 직진하는 청년은 서울 청계천에 밀집한 헌책방을 오후 내내 돌았다. 꼭 찾고 싶은 책이 있었다. 해거름이 내릴 무렵 눈이 녹아 질척이는 길은 기운이 영하로 떨어지며 빙판이 되었다. 나는 허기진 배로 추위에 떨며 100여 군데 헌책방 서가를 매의 눈으로 살핀 뒤 지쳐서 돌아왔다. 점심을 거른 터라 배가 몹시 출출하던 그 저녁, 어머니가 끓여주신 열갈이배추된장국을 목구멍으로 넘기는 순간 울컥 슬픔이 밀려왔다. 그 된장국의 온기가 핏속으로 흘러들며 위로가 되었기 때문이다.

열갈이배추된장국은 조개나 해물, 육고기를 넣지 않고, 된장을 풀어 간을 해서 심심하게 끓인 것이다. 이 심심하고 순한 맛은 인공 조미료 없이 오직 재료를 구성하는 원형질들, 즉 흙과 식물과 빗방울이 한데 섞이고 어우러진 맛이다. 따뜻한 국물이 식도를 거쳐 비어 있는 위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순간, 나는 세상과 오랫동안 불화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까마득히 잊어버



렸다. 밥과 국물이 몸속으로 들어가서 배 속을 덥혔다. 배 속이 훈기로 데워지자 그럭저럭 살 만하다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그날 밤 나는 혼곤한 잠을 잤다.

막을 내린 나의 집밥 황금시대

음식은 어떤 분위기에서 누구와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맛이 달라진다. 음식에 내밀한 감정이 겹쳐지면 어떤 밥은 목이 메고, 어떤 밥은 벽찬 회한의 슬픔과 함께 삼켜야만 비로소 넘어간다. 도무지 잊을 수 없을 만큼 기쁜 밥도 있고, 마음이 파인 듯 아프게 삼킨 슬픈 밥도 있다. 애인과 서울 근교 어느 산자락 식당에서 먹은 산채 정식, 저 남도 별교 식당에서 먹은 꼬막 정식, 초봄 목포 식당에서 벗들과 함께 먹은 돼지고기와 묵은지와 삭힌 홍어를 한입에 먹는 삼합과 홍어탕, 해남의 오래된 여관에서 하룻밤 묵은 뒤 이튿날 아침 식사로 받은 한상 푸짐한 한식, 통영의 바닷가 식당에서 먹은 도다리썩국과 민어화... 내 입맛을 돋운 음식을 열거하자면 끝도 없다. 나는 이렇듯 다양한 음식과 더불어 나이를 먹었다.

나는 감정과 감각이 넘치는 가운데 질풍노도로 내달던 청년 시절에서 한참 멀어졌다. 내 인생은 격류와도 같이 흘러갔다. 어느덧 나는 정수리계의 머리가 희끗해진 장년기로 들어섰다. 사랑에 실패하고, 사업도 무너졌다. 그런 가시덤불 같은 세월을 건너오면서 환멸과 치욕과 두려움도 어느 정도는 다 아는 나이에 이르렀다. 어느 해 겨울 저녁, 열갈이배추된장국을 끓이시던 어머니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내 집밥의 황금시대는 끝났다. 좋은 시절은 가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집밥을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것은 내 인생이 텅없고 쓸쓸해진 이유 중 하나다. ❀



작가 장석주는 어린 시절부터 글쓰기를 동경해왔으며, 스무 살 때 시인으로 등단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된 후 시와 문학평론을 함께 작업하고 있다. 때로는 대학교수, 방송 진행자 등 다양한 곳에서 활약했으나 지금은 전업 작가로 살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쉬지 않고 글을 쓴 결과, 엮은 책이 100여 권에 달할 정도로 왕성한 글쓰기를 하는 문장노동자다.

나누는 마음은 이미 어른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는건 멋진 일이야

지난 9월 나눔에 대한 영상 세 편이 사랑의열매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일상 속 나눔 실천 운동을 담은 <미리 할 수 있어요, 나눔>, 나이가 어려도 나눔을 할 수 있음을 알린 <나도 할 수 있어요, 나눔>, 실천의 중요성을 담은 <지금 바로 여기 실천해요, 나눔>이다. 세 편의 영상을 본 아이들은 자신의 나눔 이야기를 글로 적었다.

제6회 나눔공모전은 지난해 9월 3일부터 10월 12일까지 영상물 세 편 중 한 편 이상을 시청하고 감상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공모전에는 1만 3,048명이 응모했으며, 10월 말부터 작품 심사를 시작해 약 6주에 걸쳐 예비 심사와 1·2차 심사, 최종 검증 등이 이루어졌다. 공정한 심사 과정을 거쳐 영광의 얼굴들이 시상식에 섰다.

나눔의 의미를 알아가는 기회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열린 나눔공모전 시상식에는 개인상 1,291명, 단체상 39개교, 지도교사상 4명 등 모두 1,334건의 시상 이 이뤄졌다. 시상은 크게 개인과 단체로 나뉜다. 대상(교육부장관상) 4명과 2개교, 최우수상(시도 교육감상) 29명과 20개교, 우수상(사회

복지공동모금회장상) 81명과 17개교, 장려상(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 총연합회장상) 165명,佳作(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회장상) 1,012명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학교 현장에서 열정적으로 나눔교육을 실천해 온 교사를 대상으로 한 지도교사상에는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이 수상했으며 임진모(전주 근영여자고등학교)교사가 대상을 수상했다. 사랑의열매는 교육부와 함께 2013년부터 나눔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는데, 2018년까지 개인과 학교 등 총 10만 5,365건의 작품이 응모되었으며 7,878건의 시상 이 이루어졌다. 나눔을 기반으로 한 인성 교육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나눔을 생각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참여한 모두가 수상하지 못하더라도 자기만의 나눔의 의미와 실천을 고민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제6회 사랑의열매 나눔공모전 수상작으로 보는 대상 수상자의 이웃 사랑 이야기

개인상 대상 수상작 중 일부를 발췌했다. 어린 학생들이 나눔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엿볼 수 있다. 오히려 어른들을 뜨끔하게 만들 정도로 성숙한 생각이 인상적이다.



고등학교 부문 대상
강태랑
경남 거제옥포고
1학년

양갱의 달콤함을 아나요?

“누구나 나눔을 하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실천에 옮기는 건 다른 문제지.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나눔을 하고 싶어 하진 않으니깐. 학생, 학생은 멋진 행동을 한 거야. 등 곳곳에 피곤할 텐데 이거 먹어” 하시면서 할아버지 주머니에 들어 있던 양갱을 하나 주셨다. (중략) 양갱 껍질을 벗겨 입에 넣고 씹어댔다. 양갱의 식감과 맛, 향도 싫어하는 내가 느끼는 맛은 달콤함 단 하나뿐이었다. 내가 나눔이란 행위를 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든 순간이었고, 나도 너무 뿌듯했다. (중략) 나처럼 한 번이라도 양갱의 달콤함을 느꼈다면, 이 뿌듯한 느낌을 느꼈다면 그 누구라도 지나가는 길에 헌금함에 1,000원이라도 넣을 것이고, 버스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비켜줄 것이다. ♡

초등학교
고학년 부문 대상
방유정
대전 한밭초 6학년

마음에서 빛이 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겉모습만 예쁜 사람은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람은 오드리 험번처럼 마음에서 빛이 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용돈을 모아 2년 넘게 사랑의열매에 매월 2,000원

씩 기부도 하고, 지금까지 840시간 이상 봉사 활동을 하면서 마음에서 빛이 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략) 저희 가족은 약 3,800시간 넘게 가족 봉사 활동을 하면서 가족의 끈을 더 견고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로 ‘가족’이란 단어가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나눔을 실천해보요! 모든 사람이 함께 웃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마음에서 빛이 나는 사람이 되기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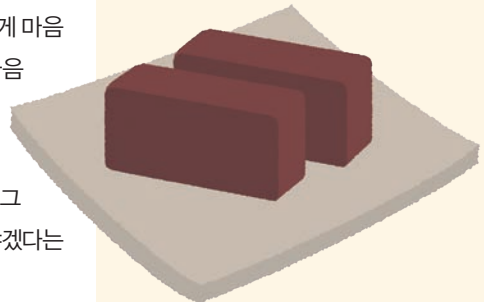


중학교 부문 대상
박사랑
경기 예수향남기독
중 2학년

진심이라는 마음에 스며드는 시간

선배와 나의 차이점이 무엇이었는지... 바로 ‘진심’이었다. 나보다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알 수 있을 만큼 진심을 보여줬다. 나는 그 진심을 따라 하기엔 아직 미숙하고 어리석은 한 작은 아이에

불과했던 것이다. (중략) 언니는 내 마음을 알았는지 이렇게 말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준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야. 하지만 너라면 할 수 있어. 너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상대에게 다가간다면 그 마음은 벌써 전달된 것이야.” 나는 그때 알았다. 사람은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가장 빛난다는 사실을. 나는 선배에게 진심이라는 선물을 받은 것이다. 그 진심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그 것을 나누며 그걸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겠다는 것을 깨달았다.



인천 쪽방촌 주민들 11년째 기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인천 만석동 쪽방 거주민들과 인근 노숙인, 무료급식소 이용 노인 등이 볼펜조립, 폐지 수거 등으로 마련한 성금 160여만 원을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쪽방촌에서의 5천 원은 하루 종일 쇼핑백을 접고 받는 하루 일당이고, 단돈 천원도 누군가의 하루 생활비이다. 인천쪽방상담소의 박중숙 소장은 “여기 어르신들의 천원은 다른 사람들의 백만 원보다 커요. 하루 용돈일 수도 있고, 하루 생활비의 전부일 수도 있어요. 그야말로 전 재산이죠.” 그런데도 연말에 ‘만날 받기만 해서 미안하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자는’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까지 모금을 이어오고 있다. 매년 12월 첫째 주, 단 하루 설치되는 모금함이지만 한 해 동안 기다렸던 주민들은 따뜻한 마음을 전한다. 기부 금액도 몇 백 원에서 만원 단위까지 다양하다. 쪽방촌에서 기부가 시작된 건 지난 2008년 12월이다. 쪽방촌 주민들은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처음으로 모금을 시작했고, 그렇게 모은 성금 87만 1,610원을 사랑의열매에 기부했다. 처음에는 한 번의 기부로 끝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연말이 되면 주민들이 먼저 나서 모금 의사를 밝힌다. 올해는 사랑의 온도담이 더디게 오르는 모습을 보고 적극적으로 두 팔을 걷어붙였다. 이준모 인천 내일올여는집 이사장은 “언론을 통해 사랑의온도가 아직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어 마음이 아팠다”며 “쪽방촌 주민들과 시설 이용자분들이 십시일반 작은 금액이라도 함께 마음을 모아 사랑의온도를 높이고자 자발적으로 기부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쪽방 거주민들의 기부는 올해 11년째로 현재까지 누적 기부액은 1,400여 만 원에 이른다. 이 기부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원사업과 사회복지시설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연순 사랑의열매 사무총장은 “자신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십시일반의 정성을 모아준 만석동 주민들의 꾸준한 기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사랑의열매는 이 분들의 소중한 뜻을 되새기며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밝혔다. 십시일반을 보여준 쪽방촌 주민들의 기부는 날로 각박해가는 세태에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있다.

중앙회

한국기자협회, 이웃사랑 성금 1,000만원 기부

한국기자협회(회장 정규성)가 사랑의열매에 이웃사랑 성금 1,000만원을 기부하며 '희망2019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 정규성 한국기자협회장은 사랑의열매 회관을 방문해 예종석 사랑의열매 회장에게 성금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한국기자협회 최진주 부회장과 김연순 사랑의열매 사무총장도 함께 했다. 정규성 회장은 "연말에 사랑의 온도탑 온도가 낮다는 기사를 접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올해도 사랑의열매를 찾았다"며 "모든 국민들이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언론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예종석 사랑의열매 회장은 "매년 꾸준한 기부를 통해 우리 사회에 온정을 전파하는 한국기자협회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길에 한국기자협회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한국기자협회는 2012년부터 매년 사랑의열매에 이웃사랑 성금 1,000만원을 기부하고 있다.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나눔을 이어가는 것이라 밝혔다. 1964년 창립된 한국기자협회는 전국의 신문·방송·통신사 소속 현직 기자 1만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내 최대 언론단체로 언론 자유, 기자 자질 향상, 기자 권익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랑의열매, 한국3대3농구연맹 사회공헌 업무협약 체결

사랑의열매는 1월 22일 한국3대3농구연맹(회장 양재택)과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2019년도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랑의열매와 한국3대3농구연맹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연중에 이벤트 모금을 진행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렇게 모인 금액은 사랑의열매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의 생계비와 의료비 등에 지원될 예정이다. 양재택 회장은 협약식에서 "사랑의열매와 함께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며 "앞으로 젊은 층의 나눔참여를 위해 사랑의열매와 함께 다양한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협약과 별도로 사회공헌성금 600만원을 전달하는 행사도 가졌다. 3×3농구는 풋살, 비치발리볼, 7인제 럭비, 5인제 야구 등 시·공간의 제약을 덜 받으면서 규칙이 간소화돼 직접 즐기기 쉬운 '미니멀 스포츠'의 형태를 띠고 있다. 길거리 농구로 시작해 2020년 도쿄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스포츠로 재미와 스포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스포츠 콘텐츠로 떠오르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3대3농구연맹은 아마추어 동호회 수준에 머물고 있던 한국의 3대3 농구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향후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종목으로 만들기 위해 출범된 조직이다.





서울시, 전국 리사이클센터와 세탁기 1,000대 지원

서울시와 서울 사랑의열매가 전국 리사이클센터와 함께 아동·청소년, 다문화 가정 등에게 세탁기를 지원한다. 전국 리사이클센터, 서울시, 서울 사랑의열매, 서울 시사회복지관협회와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주제로 시청에서 기부 전달식을 개최했다. 지난 2015년부터 11개 지자체를 순회하며 세탁기 지원 사업을 펼친 전국 리사이클센터는 이번 행사를 펼치며 서울시에 1,000대의 세탁기(1대당 15kg, 약 7억 7,000만 원 상당)를 서울 사랑의열매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유진그룹, 기부로 새해 첫 업무 시작

1월 2일 유진그룹(회장 유경선)은 여의도 본사에서 희망2019나눔캠페인에 3억 원을 기탁했다. 이 성금은 서울 사랑의열매를 통해 사회복지 기관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데 쓸 예정이다. 유진그룹은 지난해 11월부터 주거 환경 개선 사회 공헌 캠페인 '희망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홀트일산복지타운과 요양원을 비롯해 서울 금천구 경로당 두 곳의 노후 시설물을 개선하고 후원 물품을 전달하는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친 바 있다.

해군교육사 전투체계학부 교관들, 상금 전액 기부

해군교육사령부 전투병과학교 전투체계학부 교관들이 '해군 전투 발전제안'에 선발되어 받은 상금 전액을 경남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이들은 작년에도 상금을 기부했다. 올해 수상한 이동희 상사, 임경빈 원사, 곽명구 상사, 김정호 중사는 다시 한번 뜻을 모아 기부금으로 쾌척했다. 이동희 상사는 "앞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해군상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배분 사업 전달 및 수행 안내 교육

경남 사랑의열매(회장 한철수)는 '2019년도 신청 및 복권 사업으로 62개소에 10억 9,800여만 원에 대한 배분금 전달식과 사업 수행 안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도내 사회복지 기관에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업을 자유 주제로 기획해 신청하는 '신청 사업'과 복권 기금으로 지역 내 야간 보호가 필요한 대상 아동·청소년을 일정 수 이상 확보한 사회복지 단체 및 시설의 '아동·청소년 야간 보호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은호·김미나 부부 나눔결혼식

1월 5일 나눔결혼식 주인공이 탄생했다. 나눔결혼식의 주인공 서은호·김미나 부부는 특별한 결혼식을 고민하던 중 우연히 나눔결혼식 소식을 접하고 동참하기로 했다. 신랑 서은호 씨는 "축복받는 결혼식에 함께한 지인과 모든 이웃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나눔결혼식을 진행하게 됐다. 일생에 단 한 번뿐인 결혼식이 더 특별해진 것 같아 행복하다"며 기쁜 마음을 전했다.



한국동서발전(주), 행복 에너지 바우처 후원금 전달

한국동서발전(주)(사장 박일준)은 울산신청에서 행복 에너지 바우처 후원금 3,000만 원을 울산 사랑의열매(회장 한시준)에 전달했다. 에너지 바우처란 기초수급자에게 바우처를 지급해 동절기(12~2월) 동안 난방 에너지(전기, 도시가스 등) 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가구당 월평균 10만 원 내외를 지급한다. 한국동서발전(주)에서는 정부 에너지 바우처 제도, 미수혜 대상의 에너지 지원을 통해 '한국동서발전e 전달하는 온기(溫氣)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 나눔리더 가입

부산 해운대구에서는 '나눔천사 기부 릴레이' 이벤트를 시작했다. 이 이벤트는 현금(1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 현물, 재능 기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나눔 문화를 이어가기 위해 만든 것이다. 기부 릴레이는 홍순헌 해운대구청장부터 시작했는데, 홍 구청장은 부산 사랑의열매 나눔리더로 가입하면서 해운대구 나눔천사 1호로 포문을 열었다. 뒤이어 2호 나눔천사로 해운대구의회 이명원 의장을 지목하면서 기부 릴레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부산 W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희망박스 만들기 봉사 활동

고액 기부자 중 여성 회원의 모임인 부산 W아너 소사이어티 클럽(회장 이정화)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홀몸 어르신을 위한 '설맞이 사랑나눔 희망박스 만들기'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희망박스에는 즉석밥, 떡국 떡, 참치캔, 삼푸, 주방 세제 등 식료품과 생필품을 담았다. 부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지역 내 저소득층 홀몸 어르신 50 가구에 전달한다. W아너는 금전적 기부를 넘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를 약속하며 지난 2018년 9월에 출범했다.



again 11인, 부산아너 소사이어티 전국 최대 동시 가입

부산 사랑의열매(회장 신정택)는 1월 28일 오후, 첫 전국 최대 아너 소사이어티 동시 가입식을 가졌다. 2016년 11인회 가입 이후 두 번째 11명의 회원 공동 가입이며, 154호부터 164호까지 동시 탄생이다. 신정택 회장은 "나눔을 결심하고 실천을 해주신 신규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들과 함께해서 행복하다. 경기는 어렵지만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누구보다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배분하여 성금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동두천시 설 명절 지원 사업 및 냉동탑차 전달식

경기북부 사랑의열매(회장 이순선)는 설 명절을 맞아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생계비와 명절 선물 세트를 지원한다. 동두천시에는 2,600만 원, 양주시에는 3,00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2018년도 현장 욕구 맞춤형 차량 지원 사업'을 통해 동두천 천사푸드뱅크에 2,500만 원 상당의 냉동탑차를 지원했다. 이는 기존 단일 차종 차량 지원이 아닌, 현장 욕구에 맞춘 선택 맞춤형 차량 지원을 통해 지역 복지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케이엠제약(주) 1억 6,000만원 상당 생필품 지원

유·아동 구강 제품 및 각종 성인용 치약, 칫솔 제조 유통 센터 케이엠제약(주)이 1억 6,000만 원 상당의 성품을 전달했다. 성품은 서안성 푸드뱅크를 통해 경기도 전역 저소득 가정에 지원할 예정이다. 케이엠제약은 다양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매년 경기 사랑의열매를 통해 생필품을 기부하고 있다. 누적 기부금은 4억 4,500여만 원이며 올해부터 경기 사랑의열매와 공익 연계 마케팅을 체결해 나눔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성금 2억 5,000만 원 전달

포스코건설(사장 이영훈)이 희망2019나눔캠페인의 일환으로 사회 공헌 성금 2억 5,000만 원을 인천 사랑의열매(회장 정명환)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인천 지역 아동·청소년과 사회 배려 계층을 지원하고, 국내외 자원봉사 활동과 연계한 사회 공헌 활동을 진행하는데 사용할 예정이다. 포스코건설은 그동안 지역민을 위해 꾸준한 나눔 실천의 뜻을 펼쳐왔으며, 2007년부터 인천 사랑의열매를 통해 기부한 금액은 약 30억 원에 달한다.



인천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떡국 봉사 활동

1월 15일 인천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회장 최성규) 회원들과 인천 사랑의열매(회장 정명환) 임직원은 새해를 맞아 아동 양육 시설인 향진원을 방문해 떡국 봉사 활동을 펼쳤다. 식사 배식과 컵케이크 만들기, 선물 증정 등 훈훈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보냈다. 행사 종료 후 아이들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회비 일부를 향진원에 전달했다. 최성규 클럽 회장은 "명절을 앞두고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아이들과 함께 따뜻한 음식을 나눌 수 있어서 기쁘다"라고 말했다.

50번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탄생

세일하이텍(주) 박광민 대표가 아너 회원으로 가입해 충북 사랑의 열매(회장 이명식) 50번째 회원이 됐다. 세일하이텍(주)의 모태인 세일화학공업사를 창업한 박 대표는 국내 정착 산업 발전을 이끌어온 1세대 개척자이다. 넓은 외양간을 연구소 겸 공장 삼아 회사를 설립한 박 대표는 회사 입구에 있던 가마솥을 기억한다. “그때의 가마솥을 기억하며 충북 지역의 발전과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전국 최초로 사랑의 온도탑 100℃ 넘어

충북 사랑의열매(회장 이명식)는 '희망2019나눔캠페인' 성금 모금이 목표인 66억 8,900만 원을 돌파해 100℃가 넘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경기 침체와 기부 불신 분위기로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매년 용돈을 아껴 동전을 모아준 고사리손의 기부부터 11억 2,000만 원이라는 성금을 담지한 SK하이닉스 등 많은 기업과 단체는 물론, 소형 점포와 도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따스한 손길을 더해 목표를 이룰 수 있었다.

KCC 후원금 2억 원 기탁

KCC는 '함께 만드는 더 좋은 세상'이라는 사회 공헌 철학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에 이바지하는 나눔 경영을 실천하고자 충남 사랑의열매(회장 이관형)에 성금을 기부하고 있다. 1월 15·17일 두 차례에 걸쳐 서산시와 아산시에 각각 1억 원씩 2억 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 앞서 KCC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 가정과 형편이 어려운 이웃의 생계비·의료비 등 복지 지원에 사용해달라”며 기부 의사를 밝혔다.



천안시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 총회 개최

천안시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단장 김예환)은 1월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봉사단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열었다. 구본영 시장 부인 정혜정 씨의 명예단장 가입식, 감사(표창)패 및 연말 성금 모금액 전달, 2019년 나눔봉사단 조직편성, 임원 임명장 및 단원증 전달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정혜정 씨의 명예단장 가입은 충남 최초로 그 의미를 더했다. 구본영 천안시장은 착한가정, 나눔리더 가입 등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며 나눔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대전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 성금 1억 9,000만 원 기부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공장장 윤정록)은 매년 희망나눔캠페인에 성금을 기탁해 나눔 경영을 실천해오고 있다. 올해도 1월 11일 대전 사랑의열매(회장 안기호)에 소외 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1억 9,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 성금은 지역의 소외 계층과 사회복지 시설 지원에 쓸 예정이다. 한편,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은 2008년부터 대전 사랑의열매를 통해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번 성금을 포함해 총기부금은 10억 5,000여만 원에 달한다.



대전 사랑의열매, 이웃에 설 명절 1억 원 지원

대전 사랑의열매(안기호 회장)는 설 명절을 맞아 총 1억 원을 대전 지역 내 저소득 가정, 소년·소녀 가장, 장애인 및 홀몸 어르신 등 생활이 어려운 이웃 2,324가구에 설 명절비 8,500만 원을 지원한다. 쪽방 거주민 및 다문화 가정 등이 이용하는 2개의 사회복지 기관에는 명절 행사비와 무료급식, 공동차레상 비용 등 약 1,500만 원도 지원 예정이다.

대구

권영진 대구시장, 대구 첫 나눔리더 가입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의 첫 나눔리더로 가입했다. 지난해 11월 20일부터 대구 사랑의열매에서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진행되는 '희망2019나눔캠페인'에 힘을 보태고자 권 시장이 1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하며 가입을 결심해 대구 첫 나눔리더에 이름을 올렸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앞으로 남은 캠페인 기간 동안 대구의 나눔 온도를 높이는 데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권 시장의 나눔리더 가입 한 달도 되지 않아 19명의 대구 나눔리더가 탄생했다.



대구신화수산(주) 멸치 3,300박스 사랑의 물품 전달

대구신화수산(주)(대표 고종근)은 멸치 1.5kg 3,300박스(6,000만 원 상당)를 대구 사랑의열매(회장 직무 대행 김수화)에 전달하며 '희망2019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 2011년부터 이어진 수산물 나눔의 기부 금액은 현재까지 2억여 원에 이른다. 대구신화수산은 2011년부터 인근 지역 어르신의 경로잔치를 개최하며, 지난해부터는 북구 지역 저소득 계층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세상의빛교회, 사랑나눔 상자 567박스 기탁

세상의빛교회(담임목사 전세광)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1,500만 원 상당의 사랑나눔 상자 567박스를 세종 사랑의열매회(회장 홍영섭)에 전달했다. 사랑나눔 상자는 성탄절을 맞아 500여 개를 목표로 지난해 12월부터 모금을 진행해왔고, 567박스가 완성돼 세종시 전역의 이웃에게 전달했다. 전세광 담임목사는 “신도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해주셔서 목표보다 더 많은 사랑나눔 상자를 전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며 더 많은 사회 공헌을 약속했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과, 수상금 기탁

대한민국 국무조정실(실장 노형욱) 규제개혁신문고과는 혁신 성장을 위한 규제 개혁 국민 참여 시스템을 구현한 공로로 2018년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 시상식에서 부총리상인 '제민상(濟民賞)'을 수상했고, 상금 전액을 희망2019나눔캠페인 이웃 돕기 성금으로 기탁했다. 임택진 규제개혁신문고과장은 “국민이 보내주시는 성원으로 부총리상을 수상한 만큼 상금은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 공직자의 당연한 도리인 것 같아 성금을 기탁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원일보 자선 음악회 후원금 전달

강원일보는 해마다 연말이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 콘서트 '아름다운 동행'을 개최한다. 지난 연말 역시 춘천문화예술관에서 따뜻한 이웃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콘서트를 진행했다. 여기서 마련한 성금 1,010만 956원은 지난 1월 15일 강원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강원일보 이희종 사장은 “채는 기부로 무대를 만들어주신 여러 인사 덕분에 멋진 공연을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아름다운 기부 문화 확산과 정착에 힘쓰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춘천시나눔봉사단 사랑의 연탄 배달

12월 11일 사랑의열매 춘천시나눔봉사단(단장 이월선)은 춘천시 사농동 일원의 저소득층 10가구에 연탄 2,000장을 전달했다. 이날 30여 명의 봉사단원과 군인 10여 명이 참여해 3시간 동안 봉사 활동을 했으며, 연탄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며 지내는 취약 계층의 가정에 가구당 200장의 연탄을 전했다. 이월선 춘천시나눔봉사단장은 “점점 추워지는 겨울에 어려운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

기전대학교 봉사 동아리 어울림 성금 기탁

기전대학교 사회복지상담과 봉사 동아리 어울림에서 어려운 다문화 가정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 어울림은 올해 14년째 이어오고 있는 역사 깊은 동아리다. 이 성금은 동아리 운영 기금을 아껴 마련했다. 어울림 관계자는 “아이들이 희망인데도 성장을 위한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아이가 많아서 마음이 아프다”며 “아이들이 자신의 상처를 딛고 일어설길 바라며, 이들에게 응원과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전북은행 임직원 급여 1% 나눔 전달식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의 임직원 급여 1%를 모은 1,866만 원을 전북 사랑의열매에 나눔 성금으로 전달했다. 전 임직원의 참여로 마련된 성금은 도내 소외 계층을 돕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는 데 쓸 예정이다. 전북은행은 지난 1월 21일 설을 앞두고 전북 사랑의열매와 '실맞이 이웃사랑 선물 꾸러미 나눔' 전달식을 가졌다. 라면과 차약 등 10종의 생필품을 담은 선물 꾸러미 1,600상자를 도내 홀몸 어르신과 저소득 가정에 전달한다.

광주은행 '광주·전남사랑카드' 사회공헌 기금 전달

지난해 2월 광주은행은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광주·전남사랑카드', '광주·전남사랑 플래티늄카드', '광주·전남사랑 아너스(Honors)카드' 3종을 출시했다. 그 후 전남 사랑의열매(회장 허정)와 업무 협약을 맺어 카드 이용 금액의 0.5%를 고객이 선택한 지역의 사회 공헌을 위해 기부하고 있다. 이렇게 조성한 사회 공헌 기금 6,995만 6,210원을 전남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고흥군수산업협동조합 1억 원 성금 기탁

지난해 고흥군 역대 최초로 성금 1억 원을 기탁해 지역에 훈훈한 감동을 선사한 고흥군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이홍재)에서 이번에도 1억 원 성금을 전남 사랑의열매(회장 허정)에 전달했다. 100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고흥군수산업협동조합은 전국 최대 1만 1,000여 명의 조합원을 보유한 수협이다. 매년 조합원과 직원들이 나눔캠페인에 참여하고, 군민을 위해 지속적으로 장학금 및 사랑의 성금을 기탁하는 등 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구미 상모고등학교 cafe 꿈드림 운영 수익금 기부

구미 상모고등학교(교장 김장섭) 특수학급 장애학생들의 자활 교육 공간 'cafe 꿈드림'이 카페 운영 수익금 100만 원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신현수)에 '희망2019나눔캠페인' 이웃 돕기 성금으로 기부했다. cafe 꿈드림은 특수학급 장애 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하도록 바리스타 교육 및 실습, 취업 기회 등 직무 교육과 자립 지원을 위한 교육 공간이다. 학생들은 교직원과 학우들을 대상으로 판매한 커피값 등을 모아 성금을 냈다.



(재)애린복지재단, 난치병 학생 돕기 성금 기부

경북 사랑의열매(회장 신현수)는 (재)애린복지재단(이사장 이대공)이 1월 9일, 경상북도교육청에 경북 난치병 학생 돕기 성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재)애린복지재단은 2000년부터 지금까지 경상북도교육청과 포항시를 통해 1억 1,000여만 원을 꾸준히 지원해 왔다. 성금은 난치병 투병 중인 학생의 의료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대공 이사장은 "학생들이 빨리 쾌유해 밝고 건강한 모습을 되찾아 가족 품으로 돌아가길 바란다"며 성금을 전달했다.

광주순환도로투자(주)·광주순환(주) 2,000만 원 성금 기탁

광주순환도로투자(주)·광주순환(주)(대표이사 이영훈)은 희망2019 나눔캠페인 성금 2,000만 원을 광주 사랑의열매(회장 한상원)에 기탁했다. 이영훈 대표이사는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희망나눔캠페인에 참여했다"면서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이 확산되도록 사회 공헌 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말했다. 광주순환도로투자(주), 광주순환주식회사의 가슴 따뜻한 공헌은 지역사회에 큰 귀감이 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화재 취약 세대에 소화기 400개 전달

박재홍 회장은 "화재취약 저소득 세대와 사회복지시설에 소화기를 지원해 화재위험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전달한 소화기는 광주시 5개 구를 통해 화재취약 저소득 세대와 사회복지시설에 배부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사회 공헌 활동에 공감한 회원사 영무건설, 골드클래스, 대광건설, 대성건설, 리젠시빌주택, 보광건설에서 참여하면서 이루어졌다.

제주

한국마사회제주지역본부, 관내 경로당 물품 기탁

한국마사회제주지역본부(본부장 윤각현)는 관내 경로당 세 곳에 가전제품과 가구 등 9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주 사랑의열매(회장 김남식)에 전달했다. 고성휴먼시아아파트경로당과 고성2리경로당, 중엄리경로당에 각각에 300만 원 상당의 냉장고, 책상 등 생활 가전제품과 가구를 지원했다. 이 밖에도 다각적인 사회 공헌 활동을 위해 매년 생신상 차려드리기, 김장 김치 지원, 생필품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양미나씨, 우수 봉사자 시상금 기탁

지난해 12월 22일 양미나 씨는 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주 사랑의열매(회장 김남식)에 기탁했다. 이 성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관이 주관한 '2018 자원봉사 인센티브 우수 봉사자'로 선정되어 받은 시상금이다. 전달된 상품권은 한림읍 관내 어려운 이웃에 전달할 예정이다. 양미나 씨는 "우수 봉사자로 선정되어 받은 시상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어 의미가 남다르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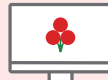
사랑의열매 다양한 기부 방법



문자기부
#9004
한 통에 2천원



ARS기부
060-700-1212
한 통에 3천원



온라인기부
같이가지
with kakao



기념일기부
좋은 날, 기쁜 마음을
함께 나눠요
문의 02-6262-3082



이벤트기부
즐거은 행사와
사랑 나눔을 함께
즐거보세요



**상담 혹은 문의가
필요하다면**
080-890-1212



계좌기부

예금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민 003137-04-000306
농협 1082-01-001966
신한 100-013-446845
외환 068-13-21097-3
우리 052-581567-13-101
하나 399-810005-31705



참 좋은 당신이 있어 세상이 1℃ 따뜻해집니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1억 원 이상을 기부했거나 5년 이내 납부를 약정한 개인 고액 기부자의 모임입니다.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더 밝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사회 지도자입니다. 국내 최초 고액 기부자 모임이자 국내 최대 기부자 클럽으로 한국형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나눔을 실천하고, 사랑의 가치를 창조해나가며 기부 문화 확산을 이끌고 있는 가슴 따뜻한 리더들입니다.

전남 80호



위성식 전남 강진군의회 의장
“그동안 받은 사랑이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보답이 됐으면 좋겠다. 초고령화 사회에 먼저 진입한 지역 실정에 맞게 앞으로 의정 활동에서도 복지 분야를 강화하고, 기초 산업의 인프라를 탄탄하게 구축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전남 81호



이다인 태영전자(주) 김영수 회장(전남 14호)의 자부, 김상설 대표이사(전남 51호)의 배우자
“아버님의 꾸준한 이웃 사랑 실천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자랑스러웠다. 아버님과 남편 뒤를 이어 가입하게 되었는데, 아너 가족으로 맞이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남 111호



전중성 아이마트 대표
경남 부부 아너 4호 전필배·김귀주 님의 아들, 경남 패밀리 아너 1호
“부모님의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식 날 동행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시는 부모님을 존경했다. 부모님과 나눔의 길에 동행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하다.”

경남 110호



양철호 양산 서울요양병원 원장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 또한 지역사회와 더불어 공존할 수 있는 길이기에 나눔을 실천하고자 아너 회원으로 가입했다.”

대구 128호



이병우 호텔 여기어때 대구점 대표
“두 딸에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기 위해 더 많이 나눔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 아너 회원이 계속 늘어나 나눔으로 따뜻한 대구가 되었으면 한다.”

대구 131호



윤봉호 선요양병원 병원장
“함께 나눌 수 있어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도 도움의 손길이 닿았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다양한 나눔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겠다.”

광주 88호



이영호 (주)이화건영 대표
“나눔다는 것은 정말 기분 좋은 일이고, 누군가를 위해 나를 헌신하는 일하기에 더욱더 고귀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너 회원분들과 함께 행복한 광주를 만들 수 있도록 애쓰겠다.”

충남 85호



정선임 선우종합건설(주) 회장
이우준 아너(충남 71호)의 어머니, 천안 패밀리 아너 1호
“아너 회원 가입을 통해 나눔의 기쁨을 알았다. 아직 이웃 사랑 실천에 대해 용기를 내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소외된 이웃을 위해 나눔 실천에 동참해주길 간절히 바란다.”

경기 202호



김준용 수병원 원장
“따뜻한 의사로 환자의 건강을 지켜드리고자 노력하는 만큼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도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 또 이웃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길 기대한다.”

경기 200호



박은숙 한국지역난방공사
“그동안 늘 사회로부터 혜택을 받으며 살아왔다. 이제는 작으나마 보답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나와 같은 평범한 직장인이 나눔에 많이 참여해 좀 더 따뜻한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북 55호



박병남 고궁 F&B 대표이사
“밝히기 부끄러워 나서지 않으려고 했으나, 다른 사람의 기부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말에 가입을 결심했다. 앞으로도 꾸준한 나눔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강원 66호



신삼례 남종현 아너(강원 16호)의 배우자, 철원 부부 아너 1호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을 계기로 사회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나눔에 참여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제주 97호



양정순 (주)광덕기업 대표
“나눔은 아주 당연한 것이다.”

제주 98호



송현울 (주)오현개발 총괄본부장
“나눔은 내 자신만의 행복보다 여럿이 행복과 기쁨을 모두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주 99호



김성룡 (주)우신건재 대표
“나눔은 행복이고 보람이다.”

제주 100호



김봉옥 현대블루핸즈 세기자동차공업사 대표
“나눔은 전파할수록 행복해진다.”

제주 10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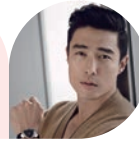
양영철 (주)부웅주택 대표이사
“남을 위해 쓸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

서울 252호



장희종
“가질수록 욕심은 커지게 마련이다. 나눔은 '내려놓기'의 첫걸음이다.”

서울 254호



다니엘 헤니 배우
“저의 실천이 나눔 문화 확산에 보탬이 되길 바라며, 더욱 모범이 되는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서울 255호



장영옥
“나눔은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밝히는 빛이다.”

서울 258호



故 정정근 모니카 특별회원
“성실, 근면, 검소한 삶을 바탕으로 나누는 삶을 살고자 한다.”

충북 50호



박광민 (주)세일하이텍 대표이사
“처음처럼을 상기하며 충북지역의 발전과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

- ☀️ **중앙회** 김학중 님, 서정훈 제너럴바이오(주)·지공(주) 대표이사, 익명 김병철 한국필립모리스(주) 전무, 이배구 (주)양지사 회장
- ☀️ **서울 사랑의열매** 심재범 (주)삼주유통 대표, 박현철 유리자산운용(주) 대표이사, 익명 2인
- ☀️ **인천 사랑의열매** 송석만 재단법인 송이 이사장, 도기봉 (주)보광종합건설 대표 김훈철 Eastern Corporation 대표
- ☀️ **경남 사랑의열매** 이윤찬 통일보일러(주)회장, 익명
- ☀️ **경북 사랑의열매** 백경수 님, 김송희 헨시스 대표, 익명
- ☀️ **전북 사랑의열매** 김한상 푸른전력(유) 대표

- ☀️ **광주 사랑의열매** 김경은 변호사
- ☀️ **경기 사랑의열매** 유민종 님, 장현 순수치과의원 원장, 박노일 광일토건환경(주) 대표이사 김재택 수지요양병원 이사장
- ☀️ **부산 사랑의열매** 문화속 좋은문화병원 원장, 익명, 김종남 님, 구재고 (주)평해 대표이사 회장 최정자 님, 강영복 해인산업(주)·Hi조선(주) 대표이사 김은수 (주)동일스위트 대표이사, 문영석 골드해상(주) 대표이사, 이봉옥 님 이승희 님, 박성자 님
- ☀️ **강원 사랑의열매** 정대환 동서산업(주) 대표



〈사랑의열매〉에 따뜻한 사연을 보내주세요

지난호 독자 의견



올 한 해도 사랑의열매와 함께하며 값진 나눔, 소중한 기부를 실천하는 이웃의 생생한 이야기를 읽으며 행복한 365일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설레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First Person 칼럼의 경기 부자(父子) 아너 2호 '엄정태·엄재문 부자' 이야기를 감동 깊게 읽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기부라는 값진 DNA를 물려받은 주인공 부자를 통해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희망찬 대한민국의 미래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정직하게 맘 흘려 일궈온 부(富)를 자손이 아닌 어려운 이웃과 나누고, 자신의 핏줄에게는 경제적 부가 아닌 나눔의 실천이라는 고귀한 정신적 유산을 남겨주고 받아들이는 주인공 부자야말로 이 시대가 원하는 진정한 부자(富者)임에 틀림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준임·경기도 포천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나뉘는 길'을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최근 들어 경기의 어려움과 취업난이 가중됨에 따라 기부금이 줄어 들고 있는데, 엄정태·엄재문 부자는 피땀 흘려 번 돈을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을 위해 흔쾌히 내놓았더니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부자가 함께 거액의 기부금을 내놓아 나눔과 베품을 몸소 실천하는 것이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 배종만·부산시 북구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숨 쉴 공간을 찾아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 〈사랑의열매〉를 펼칩니다. 마음이 넓고 착한 사람들을 보면 저도 덩달아 선함을 실천하고 싶고,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고, 삶에 의미를 부여해주는 책이기에 부지런히 읽고 마중회관에도 꽃아두곤 합니다. 이번 호에도 훌륭한 기사가 많은데 그중에서도 우리 사회에 큰 모범이 되는 스타들의 훈훈한 기부 이어달리기를 보고 역시 멋지구나 생각했어요. 천현무의 아니 가담, 이연복 착한가게, 장근석의 연탄 봉사 등 쪽방촌의 이웃을 찾아가 위로의 손길을 내미는 그들이 있어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고 느껴네요. - 송국희·전북 순창군

이렇게 참여하세요

〈사랑의열매〉를 보시고 좋았던 기사나 의견을 보내주세요. 나눔에 대한 즐거운 추억이나 감동적 이야기, 〈사랑의열매〉에 전하고 싶은 말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더욱 알차고 따뜻한 〈사랑의열매〉를 만듭니다. 참여하신 분 중 세 분을 추첨해 선물을 드립니다. 보내주실 때에는 이름과 주소, 연락처도 잊지 마세요. **이메일** cckpr@chest.or.kr

독자 선물

독자 의견에 선정된 분에게는 문화상품권(2만 원)과 사랑의열매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담요



머그컵

머그컵은 발달장애인들이 그린 일러스트를 담았습니다. 총 4가지 디자인으로 사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에코백

〈사랑의열매〉를

e-book으로도 만나보세요!



'사랑의열매' 홈페이지에서 〈사랑의열매〉 매거진을 볼 수 있습니다.

PC 홈페이지상단

공동모금회 → 홍보자료 → 출판 및 인쇄 → 회보

모바일 홈페이지 하단 회보

홈페이지 www.chest.or.kr

우리도
오늘

첫! 사랑의열매 시작한다!

어리니까
사랑이 뭔지 모른다고요?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소액기부부터 나눔 활동까지,
사랑을 전하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니까요.

당신,
지금 사랑하고 있나요?

포털에 **사랑의열매** 검색하고
당신의 사랑을 전해주세요!

기부상담 080-890-1212
ARS기부 060-700-1212
홈페이지 www.chest.or.kr

길고도 짧은 73일간의 여정의 끝
사랑 씨앗 하나 심으셨나요?

